



2012 박물관 시민강좌

행복한 박물관  
Happy Museum



# 조선 전문가의 세계 프로페셔널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 차례 / Contents

---

교육일정	3
세종과 조선왕조의 과학기술 정책_구만옥	5
조선시대 화원_진준현	15
허준과 대장금, 인술을 펼친 명의들_안상우	25
경제이론으로 본 전통시대의 사채_조영준	33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_이기봉	41
조선후기의 수장가_박효은	53
우리나라의 산대희_손태도	61
조선시대의 법의학_김호	79
조선의 역관_백옥경	89
조선의 천문역산가_문중양	101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세계_최선일	123
조선의 무당과 점복_홍태한	129



## 2012년 박물관 시민강좌 교육일정

- ◆ 주 제 : 조선 프로페셔널 전문가의 세계  
 ◆ 기 간 : 2012년 1월 7일 ~ 12월 1일  
 ◆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

순번	날짜	강사	강의주제
1	1/7	구만옥 (경희대학교)	세종과 조선왕조의 과학기술 정책
2	2/4	진준현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 화원
3	3/3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허준과 대장금, 인술을 펼친 명의들
4	4/7	조영준 (서울대학교규장각)	경제이론으로 본 전통시대의 사채
5	5/5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
6	6/2	박효은 (홍익대학교)	조선후기의 수장가
7	7/7	손태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리나라의 산대희
8	8/4	김 호 (경인교육대학교)	조선시대의 법의학
9	9/1	백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조선의 역관
10	10/6	문종양 (서울대학교)	조선의 천문역산가
11	11/3	최선일 (문화재청)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세계
12	12/1	홍태한 (중앙대학교)	조선의 무당과 점복



# 세종과 조선왕조의 과학기술 정책

구 만 옥

경희대학교





# 세종과 조선왕조의 과학기술 정책

## #1

번지(樊遲)가 농사일을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고 하셨다. 채전(菜田)을 가꾸는 것을 배우기를 청하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늙은 원예사만 못하다”고 하셨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小人)이구나! 번수(樊須)여! 윗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고, 윗사람이 의(義)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윗사람이 신(信)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성실함[情]을 다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방의 백성들이 자식을 포대기에 업고 올 곳이니, 어찌 농사짓는 것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sup>1)</sup>

## #2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홀로 밭 갈고 또 할 수 있단 말인가. 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 백공(百工)의 하는 일이 구비되어 있으니, 만일 반드시 자기가 만든 뒤에야 쓴다면 이는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길에서 분주히 왕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혹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며, 혹은 힘을 수고롭게 하나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고 하였으니,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이다.<sup>2)</sup>

### 1.

전근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세종대의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 세종대(15세기 전반) 과학기술 발전의 독특한 성과를 당시의 과학기술 정

1) 『論語』, 子路, 13章. “樊遲請學稼, 子曰, 吾不如老農, 請學爲圃, 曰, 吾不如老圃. 樊遲出, 子曰, 小人哉, 樊須也, 上好禮, 則民莫敢不敬, 上好義, 則民莫敢不服, 上好信, 則民莫敢不用情, 夫如是, 則四方之民, 襁負其子而至矣, 焉用稼.”  
2) 『孟子』, 滕文公 上, 4章. “然則治天下, 獨可耕且爲與.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 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備, 如必自爲而後用之, 是率天下而路也, 故曰,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 治人, 勞力者, 治於人, 治於人者, 食人, 治人者, 食於人, 天下之通義也.”

책과 관련지어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세종대의 과학기술 정책이 세종의 영도력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력에 대한 관심과 유교의 농본주의·민본주의에 입각하여 시행됨으로써 15세기 전반 세계 첨단 수준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국왕(태종과 세종)의 의욕적이고 거시적인 과학기술 정책,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인재 등용 방식, 조직적인 공동연구 체제의 발전, 각종 기술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기술적 자립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 등의 요인에 의해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은 세종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비판에 직면하였다.<sup>4)</sup> 따라서 조선왕조 과학기술 정책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 시야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조선왕조의 사회구조를 염두에 둔 방법론상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2.

조선왕조 지배질서의 골간이라 할 수 있는 ‘경제(經濟)’·‘경국(經國)’의 이념과 준거들은 15세기의 정제(政制)·법전(法典)의 거듭된 정비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정착되었다. 이후 이른바 ‘경국대전체제(經國大典體制)’는 조선왕조 전기 간에 걸쳐 국가운영의 기본 질서로 간주되었다. 이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사회변동을 수습하고, 국가·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집권체제(集權體制)의 재편(再編)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사상사의 측면에서 그것은 주자학의 수용과 정착을 확인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정표였다. 이에 따라 조선전기에는 각종 법제와 의례가 주자학의 원리에 따라 재정비되었고, 국가의 정책 역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조선전기 과학기술 정책의 성격과 내용은 위와 같은 역사적 흐름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교·주자학의 정치사상적인 필요에 의해 추진된 과학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집권체제의 사회경제적 요청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이었다. 유교·주자학이 조선왕조 집권체제의 사상적 기초였다는 점에서 양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왕조 교체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왕조체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조선전기의 과학정책 가운데 먼저 주목되는 것은 역시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정치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천문학의 정비와 천문역법의 발달이었다. 유교·주자학에서는 ‘관상수시(觀象授時)’를 제왕의 첫 번째 임무로 간주하여 천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수명개제(受命改制)’의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왕조가 수립되었을 때에는 천명(天命)

3) 全相運, 「韓國 科學技術政策의 史的 考察」, 『誠信女子師範大學 研究論文集』 2, 誠信人文科學研究所, 1969, 186~193쪽 참조.

4) 朴星來, 「科學·技術」, 『韓國史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1 ; 朴星來, 「조선시대 科學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 『韓國史 市民講座』 16, 一潮閣, 1995.

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천문역산학의 정비를 우선적 과제로 삼았다. 태조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각석, 세종대 간의대(簡儀臺)의 설립과 『칠정산(七政算)』이라는 자주적 천문역법의 편찬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전기의 과학기술정책은 집권체제의 사회경제적 안정화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의 개창은 역사적으로 볼 때 토지와 인민에 대한 일원적·직접적·통일적 지배를 목표로 하는 집권체제의 재편 과정이었다. 따라서 토지와 인민에 대한 새로운 지배 질서를 확립하여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초의 주된 관심사였고, 조선왕조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국정운영 기조와 보조를 같이 하였다.

먼저 토지제도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왕조 정부의 정책은 사적 토지소유에 입각한 지주 전호제와 자영소농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것은 수조권(收租權) 분급제를 급속히 축소·해체시킴으로써 사적인 농민지배의 통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토지제도의 변동 속에서 중앙정부는 전국의 토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각종 지도의 제작과 지리지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집권국가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양전(量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산학(算學)을 발전시키고 도량형(度量衡)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농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생산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농사직설(農事直說)』의 편찬으로 상징되는 농법개량과 권농정책, 의창제(義倉制)의 시행과 공법(貢法) 제정에 의한 전세(田稅)·공납제(貢納制)의 정비,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으로 대표되는 향약(鄉藥) 연구와 민간의료의 개선 등이 그와 같은 목적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학(農學)·산학(算學)·의약학(醫藥學) 분야의 연구가 국가·정부 주도하에 활성화되었다.

이밖에도 무기제조기술·인쇄술 등이 발전하였는데, 이는 집권국가의 국방·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왕조교체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왕실을 보위할 수 있는 물리력의 확보와 왕조교체의 정당성을 일반 인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필요했다. 화약 제조 기술과 화포 주조 기술의 발전으로 대표되는 화약무기의 개발과 그것을 종합·정리한 『총통등록(銃筒騰錄)』의 편찬은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금속활자 주조와 활판인쇄술의 개량 및 출판문화의 발전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 3.

조선왕조는 대외적으로 사대주의(事大主義)를 표방하였다. ‘사대교린(事大交隣)’으로 대표되는 외교정책의 강조점은 언제나 ‘사대(事大)’에 있었고, 그것은 바로 중국에 밀착된 사대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訓民正音)이나

향약(鄉藥), 『칠정산(七政算)』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자주성’을 드러내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사대(事大)와 자주(自主) 사이에서, 유교적 보편주의와 조선의 개별성 사이에서 조선왕조는 어떠한 정책 노선을 추구하였는가?

조선 초기, 특히 세종대에는 보편적인 유교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토착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것은 자연관이나 사상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기운과 가장 잘 어울리며, 따라서 이 땅의 기(氣)로부터 산출된 음물, 약재, 언어, 농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적’이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농업생산의 증진을 통한 국가 재정의 확충은 조선 초 국가 운영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농사는 먹는 것의 근원으로서 왕자의 정치에서 먼저 힘써야 하는 것”<sup>5)</sup>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농법·농업기술에 대한 정리를 통해 선진 지역의 농업기술을 후진 지역에 보급·확산시키는 일이었다. 세종 11년(1429) 완성된 『농사직설(農事直說)』은<sup>6)</sup> 태종대 이래의 농서 편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 지역[三南지방]의 농업기술을 조사·정리하여 후진 지역으로 보급시킴으로써 농업생산을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세종은 경상·충청·전라도의 감사들에게 그 지방의 농법·농업기술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는데, 조사 방법은 각 군현 내의 노농(老農)을 방문하여 그들의 경험을 수집·정리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초(鄭招, ?~1434)와 변효문(卞孝文, 1396~?)이 기존 농서와 대조하여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긴요한 것만을 추려 정리한 것이 바로 『농사직설』이었다.<sup>7)</sup> 따라서 『농사직설』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농서이면서 우리의 농업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체계적인 농서라 할 수 있다.

『농사직설』에 깔려 있는 기본 사상은 ‘풍토부동(風土不同)’의 논리로 정리할 수 있다.<sup>8)</sup> 우리나라의 풍토와 기후 조건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농업 이론이나 지침서들은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풍토부동’의 논리는 태종대에 이미 제기되었다. 지방 수령들이 각도와 주현(州縣)의 ‘풍토부동’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권과(勸課)’만을 임무로 삼기 때문에 농사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었다.<sup>9)</sup> 이러한 풍토부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5) 『世宗實錄』 卷105, 世宗 26년 閏7월 25일(壬寅), 25ㄱ(4책, 579쪽). “下敎曰,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農者衣食之源, 而王政之所先也.”

6) 『世宗實錄』 卷78, 世宗 19년 7월 23일(辛亥), 15ㄱ(4책, 93쪽). “傳旨各道監司……故歲在己酉(1429년, 世宗 11-인용자), 蒐輯諸書, 撮爲農事直說, 頒于各道, 使愚民, 亦得明白易知…….”

7) 『農事直說』의 편찬 과정과 농업기술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1988, 30~81쪽; 김용섭, 「세종조의 농업기술」, 『세종문화사대계 2(과학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363~397쪽 참조.

8) 『世宗實錄』 卷44, 世宗 11년 5월 16일(辛酉), 16ㄴ(3책, 181쪽). “以五方風土不同, 樹藝之法, 各有其宜, 不可盡同古書.”

것이 ‘의토(宜土)’·‘시의(時宜)’의 논리였다.<sup>10)</sup> 각 지방의 농업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농작을 진행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농사직설』에서 확립된 조선의 농정 이념은 이후 면면히 계승되어 각종 권농교(勸農敎)와 농상교서(農桑敎書)에 반영되었다. 요컨대 조선왕조 농업정책의 핵심은 조선 농업의 전통과 특성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남북 간의 지역차에서 나타나는 ‘풍토부동’의 문제를 어떻게 조절·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있었는데, 『농사직설』은 그러한 이념적 좌표를 제시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sup>11)</sup>

세종 15년(1433)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여러 의서들을 수집·참조하는 한편, 세종 13년(1431)에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유효통(俞孝通), 전의감(典醫監) 정(正) 노중례(盧重禮, ?~1452), 부정(副正) 박윤덕(朴允德) 등으로 하여금 기존의 향약방(鄉藥方)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종류를 나누고 증보하여 완성한 의서였다.<sup>12)</sup> 권채(權採, 1399~1438)는 그 서문에서 향약 개발의 당위성을 ‘풍속부동(風俗不同)’에 따른 ‘의토(宜土)’의 논리에서 찾았다.<sup>13)</sup> 대개 지역에 따라 풍속의 차이가 있으며, 초목의 생장 역시 적당한 곳이 있고 사람의 기호도 습성에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각 지역의 토성(土性)에 맞게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아울러 권채는 『향약집성방』의 편찬이 ‘인정(仁政)’의 일환임을 확인하였다.<sup>14)</sup> 의학을 인정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이미 고려시기부터 확인되는데, 조선 초의 인정론(仁政論)은 이전의 그것에 비해 한층 강화된 형태를 보인다.<sup>15)</sup> 의약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민생을 살리고 국맥(國脉)을 장수토록 하는 것으로 ‘인민(仁民)의 정치’, ‘유국(裕國)의 방

9) 『太宗實錄』卷27, 太宗 14년 2월 1일(乙巳), 8ㄱ(2책, 4쪽). “議政府啓曰, 小民當以務農爲急, 守令專以勸課爲任. 諸道州縣風土不同, 所種之穀, 本自異宜, 耕種之候, 亦有早晚. 願以宜土之穀播種之節, 備書布告, 令守令知勸課之方, 授之以時, 庶乎民不失時矣.”

10) 『世宗實錄』卷105, 世宗 26년 閏7월 25일(壬寅), 25ㄱ~26ㄴ(4책, 579쪽) 참조.

11) 『中宗實錄』卷27, 中宗 12년 2월 26일(壬申), 40ㄴ(15책, 260쪽). “惟我朝宗導民勸課之方, 靡所不究, 至於農書, 曲盡樹藝之宜, 農事直說, 備審風土之驗, 使夫田野之民, 皆得以易曉.”

12) 『世宗實錄』卷60, 世宗 15년 6월 11일(壬辰), 40ㄱ(3책, 483쪽). “恭惟我主上殿下, 特留宸慮, 命揀醫官, 每隨使如京, 廣求方書, 且因申奏, 就太醫院, 考正藥名之謬. 宣德辛亥秋, 乃命集賢殿直提學俞孝通·典醫正盧重禮·副正朴允德等, 更取鄉藥方編, 會諸書搜檢無遺, 分類增添, 歲餘而訖.”

13) 『世宗實錄』卷60, 世宗 15년 6월 11일(壬辰), 39ㄴ(3책, 482쪽). “而名醫師之診病用藥, 皆隨氣施巧, 初非拘以一法. 蓋百里不同俗, 千里不同風, 草木之生, 各有所宜, 人之食飲嗜欲, 亦有所習, 此古昔聖人嘗百草之味, 順四方之性而治之者也……唯民間故老, 能以一草療一病, 其效甚神者, 豈非宜土之性, 藥與病值而然也.”

14) 『世宗實錄』卷60, 世宗 15년 6월 11일(壬辰), 40ㄱ(3책, 483쪽). “臣採竊念君上之道, 莫大於仁, 而仁道至大, 亦有幾多般乎. 今我主上殿下, 以盛德興至治, 守位發政, 全體此道之大, 至如藥醫濟民之事, 拳拳若此, 可見仁政本末, 巨細兼盡而無遺矣. 且古之人主, 有或躬自調藥, 或剪鬚和藥, 惠及一人者, 後世猶稱之, 豈若一修醫書, 廣示方論, 加惠兆民, 施澤萬世哉. 其規模設施, 實相萬也. 自今伊始, 因此方書, 飲餌得效, 起呻吟變札瘥, 以致登壽域, 召和氣於無窮者, 寧不知聖朝仁心仁政之所自歟.”

15) 李泰鎭, 「『鄉藥集成方』 편찬의 정치사상적 배경과 의의」,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 태학사, 2002, 141~145쪽 참조.

도'라는 것<sup>16)</sup>이 인정론의 기본 골격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조선 초에 편찬된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 『향약채취월령(鄉藥採取月令)』을 거쳐 『향약집성방』으로 이어졌던 것이다.<sup>17)</sup>

조선초기의 각종 정부 시책에서 표방된 이상과 같은 일련의 자주성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로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정인지(鄭麟趾, 1396~1478)는 훈민정음 창제의 당위성을 풍토부동(風土不同)·성기부동(聲氣不同)의 논리에서 찾았다.<sup>18)</sup> 중국과 우리는 풍토와 성기(聲氣)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언어와 문자로는 우리의 뜻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할 때 중국 문화의 획일적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 즉 “각각 그 처해 있는 바를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요 억지로 똑같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sup>19)</sup>는 주장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훈민정음의 창제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성인(聖人)의 ‘개물성무(開物成務)’에 비견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다.<sup>20)</sup>

사대(事大) 관계 하에서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가로서 규정되며, 그에 따라 각종 제도·법제·의례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예컨대 하늘에 대한 제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각종 호칭과 건축물의 규모도 제한을 받는다. 천자의 고유한 업무로 간주되는 ‘관상수시(觀象授時)’와 역서의 작성 역시 원칙적으로는 조선국왕이 담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칙과는 다른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였다. 세종대 간의대 축조와 자주적 천문역법(=七政算)의 수립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세종이 간의대를 중국 사신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은<sup>21)</sup> 사대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종대에 명(明)의 사신이 와서 조선의 지리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그 보고서에 보루각(報漏閣)·흠경각(欽敬閣)·간의대 등을 은휘(隱諱)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다.<sup>22)</sup> 당시 중종은 그것이 제후국의 제도가 아니니 담장을 높게 쌓아

16) 「鄉藥濟生集成方序」, 『陽村集』 卷17, 15ㄱ~ㄴ(7책, 183쪽). “傳曰, 上醫醫國, 方今明良相逢, 肇開景運, 以拯生民塗炭之苦, 以建萬世盤石之基, 夙夜孜孜, 盡心於治, 益圖所以活民生而壽國脉者, 仁民之政, 裕國之道, 本末兼舉, 大小畢備, 以至醫藥療疾之事, 亦拳拳焉. 調護元氣, 培養邦本, 如此其至, 其醫國也大矣. 仁被一時, 澤流萬世者, 豈易量也哉.”

17) 고려 말, 조선 초 鄉藥論의 대두와 관련 醫書의 편찬에 대해서는 金湑, 「『鄉藥集成方』에서 『東醫寶鑑』으로」, 『韓國史 市民講座』 16, 1995, 65~76쪽 참조.

18) 『訓民正音解例』(영인본 『訓民正音』, 大提閣, 1973 참조; 강신항 역주, 『訓民正音』, 新丘文化社, 1974, 61쪽-訓民正音 解例本の 원문 쪽수).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世宗實錄』 卷113, 世宗 28년 9월 29일(甲午), 37ㄱ(4책, 702쪽).

19) 『訓民正音解例』(62쪽).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強之使同也.”; 『世宗實錄』 卷113, 世宗 28년 9월 29일(甲午), 37ㄱ(4책, 702쪽).

20) 『訓民正音解例』(66쪽).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爲之私也.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蓋有待於今日也歟.”; 『世宗實錄』 卷113, 世宗 28년 9월 29일(甲午), 37ㄱ(4책, 702쪽).

21) 『世宗實錄』 卷99, 世宗 25년 1월 14일(庚午), 6ㄱ(4책, 457쪽). “上曰, 此臺(簡儀臺-인용자)建於慶會樓, 不可使中國使臣見之, 予素有移築之計…….”

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였다.<sup>23)</sup> 천문·역법·병법 등과 관련된 서책은 중국에서 반출을 금하는 것이었으므로, 사신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도 중국의 예부(禮部)에 보고하지 않고 따로 구입하였다.<sup>24)</sup>

요컨대 조선 초기 위정자들은 유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고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유교적 보편주의와 전통문화의 개별성이 충돌할 때는 그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sup>25)</sup> 국가정책의 기초는 끊임없이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것이 이른바 ‘풍토부동(風土不同)’·‘풍속부동(風俗不同)’·‘성기부동(聲氣不同)’의 논리로 제출되었고, ‘의토(宜土)’·‘시의(時宜)’에 입각한 ‘자주적 문명의식’의 표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알맞은 약재는 한반도의 풍토 속에서 자생하는 것이었고, 언어가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조선 초기 과학기술 정책의 자주적 지향은 이러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22) 『中宗實錄』卷84, 中宗 32년 4월 10일(戊午), 50ㄴ(18책, 60쪽). “傳于政院曰, 前者以我國地誌, 給天使之時, 忙迫不得詳見矣. 今乃見之, 則簡儀臺亦並書之, 前則如測象天文等事, 皆諱之也. 今之所以并書之者, 何意耶. 今已書給, 雖問之, 猶無益也. 然於予意似異, 故言于政院也.”; 『中宗實錄』卷84, 中宗 32년 4월 11일(己未), 53ㄴ~54ㄱ(18책, 62쪽). “傳于政院曰……且前見贈天使地誌簡儀臺並錄之, 恐其有忌於天朝, 故前者下問矣, 果有忌乎. 政院回啓曰, 昨日院以簡儀臺并錄事, 問于大臣, 則左議政金安老曰, 我國本稱文獻之邦也. 如此觀天之事, 雖有之, 亦非僭禮也, 有何忌乎. 傳曰知道.”; 『中宗實錄』卷84, 中宗 32년 4월 16일(甲子), 56ㄴ~57ㄱ(18책, 63~64쪽). “傳于政院曰, 今見天使處所送地誌, 如報漏閣欽敬閣簡儀臺等處, 忌諱於中朝者非一, 而具錄不遺…….”

23) 『中宗實錄』卷89, 中宗 34년 3월 27일(乙未), 69ㄴ(18책, 261쪽). “傳于政院曰, 簡儀臺, 在延恩殿之後最高, 而與後苑相近矣. 龔吳天使見而問之, 則對之之難(盖非侯邦之制故諱之)矣. 今繕工監, 高其遮籬, 使不得見可也.”

24) 『中宗實錄』卷36, 中宗 36년 8월 27일(庚辰), 5ㄱ~6ㄱ(18책, 494쪽). “兵曹判書金安國, 以求賀書冊單字入啓曰……且天文曆法兵法等書, 乃中朝所禁……答曰……天文曆法兵法等冊, 中朝所禁則令通事, 隨所見賀來可也.”

25) 朝鮮初 祭天禮의 置廢를 둘러싼 논란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 金泰永, 「朝鮮 初期 祀典의 成立에 對하여－國家意識의 變遷을 中心으로－」, 『歷史學報』58, 歷史學會, 1973; 韓祐勳, 「朝鮮王朝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祀祭問題를 中心으로－」, 『韓國史論』3,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78(『朝鮮時代思想史研究論攷』, 一潮閣, 1996에 재수록); 山內弘一, 「李朝初期に於ける對明自尊の意識」, 『朝鮮學報』92, 朝鮮學會, 1979; 韓永愚, 「朝鮮前期社會思想研究」, 知識産業社, 1983, 32~37쪽; 韓亨周, 「朝鮮 世祖代의 祭天禮에 對한 研究－太・世宗代 祭天禮와의 비교・검토를 中心으로－」, 『震檀學報』81, 震檀學會, 1996; 李碩圭, 「朝鮮初期 祭天禮와 赦宥制－民心安定策과 對한 研究－」, 『史學研究』54, 韓國史學會, 1997. 조선초기 ‘관학파’ 유학자들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김홍경, 『조선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 한길사, 1996, 259~269쪽 참조.



## &lt;표&gt; 세종시대 과학사 연표

왕력	서기	간지	주요 사건	비고
세종 1	1419	기해		
세종 2	1420	경자	11월, 李葦에게 동활자(庚子字) 주조를 명	
세종 3	1421	신축	3월, 李葦, 南汲에 의해 활판인쇄기 개량	
세종 4	1422	임인	10월, 동활자(경자자) 改鑄字樣印書	卞季良 발문
세종 5	1423	계묘		
세종 6	1424	갑진		
세종 7	1425	을사		
세종 8	1426	병오		
세종 9	1427	정미		
세종 10	1428	무신		
세종 11	1429	기유	5월, 『農事直說』 편찬, 이듬해 2월 頒賜	
세종 12	1430	경술		
세종 13	1431	신해	『鄉藥集成方』 편찬 작업 시작	
세종 14	1432	임자	1월, 孟思誠·權軫·尹淮·申櫓 등이 『新撰八道地理志』 진상 7월, 鄭麟趾에게 儀表觀天之器] 창제를 명	
세종 15	1433	계축	6월, 鄭附召·朴堧·金鎭 등이 渾天儀 진상 6월, 『鄉藥集成方』 편찬 8월, 鄭附召·李葦·鄭麟趾·金鎭 등이 혼천의 진상 新法天文圖 석각(?) 鄭麟趾 등에게 『七政算內外篇』 편찬을 명	『增補文獻備考』 『增補文獻備考』
세종 16	1434	갑인	6월, 白棼漏 완성 7월, 동활자(甲寅字) 20여 만자 주조 10월, 仰俯日晷 제작, 설치	
세종 17	1435	을묘		
세종 18	1436	병진	2월, 鄭陟에게 咸吉·平安·黃海道의 山川形勢를 그려오도록 명	
세종 19	1437	정사	4월, 각종 천문의기 완성	
세종 20	1438	무오	1월, 欽敬閣漏 완성	
세종 21	1439	기미		
세종 22	1440	경신		
세종 23	1441	신유	8월, 測雨器 발명, 수표 설치	
세종 24	1442	임술	5월, 測雨器 개량 『七政算內篇』, 『七政算外篇』 편찬	『四餘總度通軌』
세종 25	1443	계해	訓民正音 창제	
세종 26	1444	갑자	7월, 『七政算內篇』, 『七政算外篇』 간행	『四餘總度通軌』
세종 27	1445	을축	3월, 『諸家曆象集』 편찬 8월, 火砲制度 更新(分遣監鍊官, 火砲一依新定制度改鑄) 10월, 『醫方類聚』 1차 완성	
세종 28	1446	병인	訓民正音 완성, 반포 → 吏科와 吏典 取才시에 訓民正音を 試取	
세종 29	1447	정묘		
세종 30	1448	무진	9월, 『統筒謄錄』 頒賜	
세종 31	1449	기사		
세종 32	1450	경오		

# 조선시대 화원

진 준 현

서울대학교 박물관



# 조선시대 화원

## ◆ 목 차 ◆

- 一. 도화서(圖書署)와 화원(畫員)
- 二. 도화서 화원의 화풍(畫風)
- 三. 조선시대의 대표적 화원들

## 一. 도화서(圖書署)와 화원(畫員)

### 1. 설치와 개명

조선시대 國初부터 圖書院 설치(15세기 후반 圖書署로 개칭)

### 2. 도화서의 구성

『經國大典』(吏·禮·工典)

提調 1 (예조판서가 겸임)

別提 1 (종육품) 善書(종6품) 1, 善繪(종7품) 1, 畫史(종8품) 1, 繪史(종9품) 1, 훈장 1

畫員 20 (후대 30) 生徒 15(후대 30), 裱貼匠2

差備奴 5, 跟隨奴 2 (후대 篆字官 2명 추가)

### 3. 화원(畫員)의 역할

- 국가와 왕실 繪事 일체 : 어진과 공신상 등 초상화 제작, 궁중 각종행사 모사, 세화 진상
- 중국, 일본 파견 사절단 참여
- 外幕과 7도 감영(경기도는 없음) 등에 파견
- 도자기 문양 그림
- 사적활동 : 사대부나 후원자, 수요자의 요청으로 각종 그림 : 계획도, 사인초상화 등

## 4. 화원(畫員)의 시험[시취(試取)]

『經國大典』禮典 取才條(후대 사대부 추천·진급도 시험)

- 1) **녹취재** : 매년 사계절 초2일에 화원을 모두 모아 시재한다(하루 전 장무관이 제조 앞에서 출제함). 다음날 제조는 순서를 매겨 출방하고 이진 방목을 고려하여 올리거나 내려 부록한다.

시험과목 : 죽·산수·인물·영모·화초 중 2才를 택한다. (通은 3분, 略은 2분, 粗는 1분).

- 2) **월과(月課)** : 매월 15일에 행하는데 시험 규정은 녹취재와 같고, 과목은 녹취재 과목 중 1才를 취한다.

## 5. 화원 가문(家門)

조선중기부터 화원집안이 등장하여 후기로 계승되며 더욱 확산됨(17~18세기에 주로 번성)

- ① 이상좌 - 이승효, 홍효 형제 - 나옹 이정(승효 자)
- ② 경주 이씨 : 이명수 - 이정근 - 이수형 - 이홍규 - 이기룡 - 이형정 - 이정식 - 이성복
- ③ 양천 허씨 : 중기~후기 : 허승현 - 허인순, 허의순 형제 이하 7대 24명 화원 배출
- ④ 인동 장씨 : 중기~후기 : 장득만, 장경주, 장한중 등 8대 30명 배출
- ⑤ 개성 김씨 : 후기에 크게 번성

김응환, 동생 김응리 - 김득신 - 김건중, 김하중

김석신 - 김화중 - 김제도

김양신 - 김무중

## 二. 도화서 화원의 화풍(畫風)

조선의 도화서는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나 통칭하여 ‘화원(畵院)’이라 하였다. 화원의 그림을 ‘원체화(院體畵)’, 화원의 화풍을 ‘원체화풍’이라 하였는데, 명나라 동기창의 남북종화론이 나온 이후에는 ‘북종화(풍)’으로 불리기도 했다. 화원의 화풍, 즉 원체화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지점에 있다고 말해지는 문인화풍과 문인화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문인화론(文人畫論)

- 1) 북송대 소식(蘇軾), 문동(文同), 미불(米芾), 이공린(李公麟) 등이 시작  
소동파 : “論畫以形寫 見如兒童鄰” → ‘사실’을 뛰어넘는 ‘사의(寫意)’를 주장
- 2) 명(明) 말기의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의 남북종화론(南北宗畫論)  
문인의 입장에서 회화를 문인의 남종화와 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화가의 북종화로 이분하고 남종화를 중시함. 상남평북론(尙南貶北論)
- 3) 중국에서의 남종화(문인화...)와 북종화(화원화...)의 계보
  - 남종화의 계보 : 당대(唐代)의 왕유(王維)
  - 오대(五代)·북송(北宋)의 동원(董源)·거연(巨然)·이성(李成)·범관(范寬)·이공린(李公麟)·미불(米芾)
  - 원말 4대가(元末四大家 : 황공망, 오진, 예찬, 왕몽) - 명대의 심주(沈周)와 문징명(文徵明)
  - 북종화의 계보 : 당대(唐代)의 이사훈, 이소도 부자 - 북송 화원 - 남송 이당, 유송년, 마원, 하규 - 명대 초기 원체의 주류였던 절파(浙派)

## 2. 문인화(文人畫)와 원체화(院體畫)의 차이

1) **문인화** : 왕공·사대부를 비롯한 벼슬하지 않은 선비와 시인묵객들이 여가시간에 그린 것으로 자신의 마음과 뜻, 사상 등의 표현, 즉 사의(寫意)를 중시함. 화려하고 정교한 기법보다는 문기(文氣)와 서권기(書卷氣)가 깃든 간일(簡逸)하고 소박한 수묵화법을 애호함. 시화일치(詩畫一致) 또는 서화일치(書畫一致)의 경지와 시·서·화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하는 3절(三絶)을 중시함. 소재는 사군자를 비롯해 산수·인물·영모·화훼 등 다양함

2) **원체화** : 직업화가들의 형사적(形似的)이고 장식적인 채색화풍. 스스로 표현욕구 보다는 외부의 주문과 의무에 의해 창작하기 때문에 심성의 자유로움과 고상함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三. 조선시대의 대표적 화원들

### 1. 初期(1392~1550)

#### 1) 화단의 동향

- 중국 송(宋) 회화양식의 선호
- 도화서(圖畫署)의 설립과 화원(畫員)의 양성 - 안견(安堅, c.1400~1470년경)의 활약
- 사대부 문인화가들의 활약
- 명(明)나라 원채화풍의 도입 - 초기 절파(浙派)가 일부 도입됨
- 일본 무로마치(室町)시대(1336~1573) 수묵화에 영향 미침

## 2) 대표적 화원과 작품

### ① 현동자(玄洞子) 안견(安堅, c.1400~1470년경)

세종대왕 및 그 아들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으며 활동. 지곡(충청도 서산 추정) 출신 궁궐 및 안평대군의 풍부한 소장품을 보고 주로 중국 북송대 광희, 이성의 양식(李郭派)을 참조하여 완성시킨 소위 안견파 화풍이 조선초기에 대유행 함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 1447년 안평대군의 꿈을 도해. 신숙주, 이개, 정인지 등 23인의 찬문, 일본 천리대학교 소장

<추림촌거도(秋林村居圖)>(간송미술관), <설어도(雪漁圖)>(간송미술관)

<설천도(雪天圖)>, 전칭 <사시팔경도>(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대원사 <소상팔경도8폭병풍> : 16세기, 안견파 화풍

### ② 근재(謹齋) 최경(崔涇, 성종조 주로 활약)

경기도 안산에서 소금을 굽는 염부(鹽夫)의 아들. 안산 출신으로 인물화에 뛰어나 산수화의 안견과 병칭됨. 세조(世祖)·예종(睿宗)의 어진을 그렸음. 전하는 작품이 없음

### ③ 학포(學圃) 이상좌(李上佐, 1465~80여세)

남송대 馬夏派 수용. 본래 어느 선비의 가노(家奴)였으나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뛰어나 중종의 특명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다 한다. 아들 승효, 홍효, 손자 이정도 화원 <송하보월도(松下步月圖)>(국립중앙박물관), <불화초본>(개인)

## 2. 中期(1550~1700)

### 1) 화단의 경향

- 안견파 및 초기화풍의 지속 - 이정근, 이홍효, 이징
- 절파계 화풍의 대유행 - 김시, 이경운, 김명국, 그 외 대부분의 화가들
- 한국적 서정성의 영모, 화조, 그리고 묵죽, 묵매, 묵포도 등 발달 - 김식, 조속과 조지운 부자, 이정, 어몽룡, 황집중 삼절. 이밖에 오달제의 매화, 이계호와 홍수주의 포도
- 명말청초 남종문인화풍 소극적 수용 시작 - 17세기 초 전래
- 화가 집안이 뚜렷이 대두 : 김기(金祺), 김시 형제 - 김기의 손자 김식, 김집 형제 / 이경운, 영운 형제 - 이정(李淨, 경윤의 차남), 이징 / 이상좌 - 이승효, 홍효 형제 -

나옹 이정 / 윤의립, 윤정립 형제

## 2) 대표적 화원과 작품

\*양송당(養松堂) 김시(金禩, 1510이후~?)

\*낙파(駱坡) 이경운(李慶胤, 1545~1611)

### ① 허주(虛舟) 이정(李澄, 1581~1674이후)

이경운의 서자로 화원

산수, 인물, 영모, 초충 등에 능통하여 당대 제일인자 평가. 산수화는 주로 안견화풍을 따랐으나 화조화에서는 당대의 절파화풍 따름

<니금산수도>(간송미술관), <연사모종>, <평사낙안>, 소장팔경도 중 국립중앙박물관 <산수화조화첩>(간송미술관)

### ②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 鳴國 1600~1662이후)

1636, 1643 두 차례 통신사 수행 도일하여 일본에서 도석화로 큰 인기

<설중전별도>(국립중앙박물관), <송하문동도>(간송미술관)

<달마도>(국립중앙박물관), <투기도>(국립중앙박물관)

### ③ 한시각(韓時覺, 1621~?)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국립중앙박물관)

### ④ 이명옥(李明郁, ?~1713 혹은 1714이전)

한시각의 사위, 숙종의 아낌을 받음

<어초문답도(漁樵問答圖)>(간송미술관)

## 3. 後期(1700~1850)

### 1) 화단의 경향

○ 명말청초 양식 문인화(남종화)의 유행

○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완성과 발전

○ 풍속화(風俗畵)의 유행

○ 서양화법 전래와 부분적 수용

○ 회화의 다양한 발전 : 초상화, 도석인물화, 화조화, 동물화, 民畵 등 유행

### 2) 대표적 화원과 작품

#### ① 남리(南里) 김두량(金斗樑, 1696~1763)

<월야산수도(月夜山水圖)>(1774년작), <흑구도(黑狗圖)>, <목동오수도>, <짓는 개>

\*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07~1769)

문인화가이나 한국적 남종화풍을 완성해 화원들에 큰 영향



- ② 화재(和齋) 변상벽(卞相璧, 18세기 중후반 활약)  
초상화의 명수, 고양이 그림에 능함  
<묘작도>(국립중앙박물관), <김치인51세상>, 한종유와 합작, 1766, 리움
- ③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경)  
18세기 최고의 화원, 모든 회화에 능통  
<옥순봉>, <도담삼봉>(리움)  
<풍속화첩>(국립중앙박물관), <행려풍속도8폭병풍>(국립중앙박물관)  
<신선도병풍>(리움)
- ④ 긍재(兢齋) 김득신(金得臣, 1754~1822)  
김홍도의 후배로 풍속화를 계승  
<짚신삼기>, <과적도>
- ⑤ 고송유수관도인(古松流水館道人) 이인문(李寅文, 1745~1824이후)  
김홍도와 동갑화원  
<강산무진도권>(국립중앙박물관)
- ⑥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 1758?~1813이후)  
화원 신한평(1735~1809이후)의 아들  
여성풍속화의 대가 <혜원전신첩>(간송미술관), <미인도>(간송미술관)

#### 4. 末期(1850~1910)

##### 1) 화단의 경향

-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일파의 고답적 문인화풍 유행
- 오원 장승업의 활약
- 진경산수와 풍속화의 위축
- 민화의 발달
- 서양화풍의 수용

##### 2) 대표적 화원과 작품

\*소치(小痴) 허련(許鍊, 初名 維, 1809~1892)

추사 제자. 화원은 아니나 직업적 화가

<방완당산수도>(개인, 초기작), <김정희상>, <모란도>, <매화10폭병풍>

아들 米山 許滢, 손자 南農 許建, 의재 허백련에게 계승, 현대의 호남화단과 이어짐

- ① 희원(希園) 이한철(李漢喆, 哲, 1812~1900이후)

19세기의 대표적 화원

<산수도>(리움), <김정희상>(간송미술관), <호응도>(간송미술관)

② 혜산(蕙山) 유숙(劉淑, 1827~1873)

19세기의 대표 화원

<산수도>(리움), <대쾌도(大快圖)>, 1846, 20, 서울대

<수계도권(修契圖卷)>, 1853, 27세

③ 오원(吾園) 장승업(張承業, 1843~1897)

조선말 마지막 대화원

<삼인문년도>(간송미술관), <호취·쌍치>(리움), <방황공망산수>(리움)

<왕희지와 도연명>(선문대), <홍백매도병풍>(리움)

④ 소림(小琳) 조석진(趙錫晉, 1853~1920)

장승업의 제자

⑤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1861~1919)

장승업의 제자

조선말기 장승업의 화풍은 서화협회(1918~) 활동을 통해 근현대로 계승시킴

⑥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 1848~1941)

초상화가



허준(許浚)과 대장금(大長今),  
인술(仁術)을 펼친 명의(名醫)들

안 상 우

한국한의학연구원



## 허준(許浚)과 대장금(大長今), 인술(仁術)을 펼친 명의(名醫)들

### ◆ 목 차 ◆

1. 의관·유의·의녀 - 전문가와 지식인, 그리고 여의사
2. 명의(明醫)와 속의(俗醫), 성속(聖俗)의 갈림길
3. 내의원, 혜민서, 전의감, 삼의사(三醫司)와 의약관청
4. 의원 공부 및 시험, 의과고시와 고강서(考講書)
5. 의관가문 - 의역산(醫譯算) 중인가계의 세습과 전통지식의 전승
6. 의원 역할 - 조화어약(調和御藥), 보호성궁(保護聖躬)
7. 당대 의학과 의서 -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 들어가는 말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의약신화로부터 시작하여 숭한 명의들의 활약 속에 전개되었으며,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고 왕조가 교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의약이 발전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몽기와 여말선초를 거치면서 진행된 향약의 약의 진흥책, 선조-광해조 양대 왜란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동의보감』의 저술과 동의학(東醫學)의 성립, 그리고 대한제국의 국운이 쇠해가던 시점에 새롭게 등장한 사상의학(四象醫學)의 개화 그것은 장엄한 민족사를 지탱해온 등걸이자 민족의 지혜가 켜켜이 점철된 나이테 같은 것이었다.

## 1. 의관·유의·의녀 - 전문가와 지식인, 그리고 여의사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썩과 달래를 먹고 인간 세상에 환생한다는 것이 주요 테마이며, 그것은 바로 약물의 의약적 효용성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또한 천상의 비밀인 의약의 원리를 인간에게 전해준 환웅은 의약의 시조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의사(醫師)라는 명칭은 고대 의정제도의 시원으로 일컬어지는

『주례(周禮)』에서 ‘장의지정령(掌醫之政令)’, 즉 의약에 관한 정책과 명령을 관장하는 보건위생부의 장관을 말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사의(食醫), 질의(疾醫), 양의(瘍醫), 수의(獸醫) 4가지로 의원의 역할을 분류하였다.

역대 문헌 속에는 신비의 침술을 보인 고구려 사람(高麗老師), 신라의 의승(醫僧), 혹은 도승(道僧)(新羅法師, 新羅法師流觀), 그리고 충담사가 지은 향가 「찬기과랑가」에는 의술을 지닌 화랑이 등장한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김무(신라), 관록(백제)이나 덕래(고구려) 같은 의인들이 일본에 의약을 전해주어 의약의 시조로 떠받들어지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설경성, 김영석, 최사전 같은 귀족들이 직접 의약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여의(女醫)들이 등장하는데 장금(護產醫女), 귀금(有夫醫女), 장덕(齒科) 같은 여의들이 활약하였다. 또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 안동 장씨가 쓴 『음식디미방』을 통해 사대부가의 식자층 여성들이 민간 의료와 음식으로 건강을 보살피려 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의관의 양성은 제생원(의녀), 전의감, 내의원, 혜민서 등 의약관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의과(醫科) 혹은 취재(取才)라는 엄격한 선발과정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의관들과 달리 사대부의 신분으로 의약에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독자적으로 의학을 공부한 지식인을 ‘유의(儒醫)’라고 부르는데,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한 정작·정렴 형제, 세조대 제과육문(諸科六門)을 통해 배출된 권찬, 손소, 정승으로 의서를 펴낸 안현·안위 형제, 『의학입문』을 맨 처음 도입한 유성룡, 그리고 허목, 송시열, 이석간 등이 대표적인 유의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아예 의약동참청(醫藥同參廳)을 설립하고 시약과정에 배석하게 되는데 유중립, 이현양, 조정준, 유이태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 2. 명의(明醫)와 속의(俗醫), 성속(聖俗)의 갈림길

『동의보감』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손진인은 당대 약왕으로 추앙된 손사막을 말하는데, 그는 「대의정성」, 「대의습업」을 지어 의사의 윤리적 책임과 도덕적 가치에 대해 설파하였다. 그가 제시한 이상적인 의사상은 명의(明醫)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었으며, 인명을 구제하고 병고를 덜어주는 숭고한 이미지로 세인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었다.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등극한 비정한 세조임금조차도 백성들의 인명을 보살피는 인정(仁政)의 방책으로서 의학을 매우 중요시하여 친히 『의약론』을 지어 이상적인 의사상을 제시하였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양예수, 허준, 유의태, 유이태, 유상과 같은 수많은 명의들의 이야기가 구전설화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민중들의 고달픈 삶 속에서 한 사람의 명의가 얼마나 많은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주었는지 말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메시아로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내의원, 혜민서, 전의감, 삼의사(三醫司)와 의약관청

조선시대 의료를 전담하는 기구로는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를 들 수 있으며, 이 3가지는 이른바 삼의사라고 부른다. 내의원은 태의원, 내약방, 어약원, 어약방, 약방, 약국, 약원 등으로 불렸으며, 국왕과 왕실가족의 진료 및 의료정책을 총괄하였다. 명목상 수장은 도제조였으나 보통은 의약에 해박한 고위직이 겸직하였다. 기술관인 의관은 정3품 당하관인 내의원정이 한품이었을 뿐이다.

내의원과 전의감이 왕실과 사대부의 진료를 전담하여 고급의료를 지향했다면 혜민서는 도성의 백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시혜를 베풀었기에 훨씬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의료시혜를 담당하는 곳이었으며, 혜민국 혹은 혜국이라고도 불렸다. 이와 별도로 빈민구제와 병자의 격리수용을 담당하던 의료보조기관으로 동서활인서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동서대비원을 계승한 것이며, 제생원 혹은 보제원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지방관아에는 의국(약국)을 따로 두었는데, 일명 관약국이라고도 불렸으며, 지역에 따라 소속 의원과 별도로 심약(審藥), 채약정부(採藥丁夫) 등 약재를 채취하고 조달하는 직종을 두었다.

### 4. 의원 공부 및 시험, 의과고시와 고강서(考講書)

의관이 되기 위한 공식 절차는 문무 양과 시험과 동일한 절차를 갖고 있는 잡과시험의 하나로 치러졌다. 의과시험은 정기적으로 4년마다 1회씩 내의원에서 시행하였다. 초시와 복시를 통과해야 했으며, 중인 신분으로서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었다.

『동국문헌비고』에 의하면 의과와 취재 시 시험방법으로는 임강(臨講)과 배강(背講)으로 나뉘었으며, 시험 과목인 고강서로는 『경국대전』과 『대명률』 등 법전과 『직지방』, 『찬도맥』 등 의방서의 내용에 대해 실력을 검증받아야 했다. 조선중기 허준은 의과교과서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황제내경』, 『찬도방론맥결집성』, 『의학정전』 같은 책들을 내의원에서 새로 간행하였다.

### 5. 의관가문

– 의역산(醫譯算) 중인가계의 세습과 전통지식의 전승



의원은 중인가계의 대표적인 직종이었으며, 대개 역관(譯官)이나 주학(籌學, 산사算士)과 더불어 의역산(醫譯算)으로 통칭되었다. 이들 중인 가계는 서로 통혼하였으며, 외가 혹은 처가로부터 비전술기를 인인전수의 방법으로 전수받아 전문가 집단의 결속력을 유지하였다.

대표적인 중인 가계로 천령 현씨, 안산 이씨, 신천 강씨 등을 들 수 있으며, 조선전기에는 완산 전씨 가에서 많은 수의 의역관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조선후기 신분상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통청(通淸)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조공무역과 통신사절의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축적한 부와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여 사회개혁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신분제의 와해를 촉진하였다. 또 이와 별개로 몰락한 양반사대부가의 후예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목적, 혹은 실용학의 입장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 6. 의원 역할 - 조화어약(調和御藥), 보호성궁(保護聖躬)

관직에 근무하는 의관(內醫)은 일상적인 진료업무로 정기적인 안부(安否)와 입진(入診)을 맡았으며, 이외에도 의료행정, 군진의 파견, 약제조달, 전염병 방역과 치료뿐만 아니라 나아가 빈민구제, 납약(臘藥)의 제조 및 분배 등 갖가지 의약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국왕의 명령에 따라 중친이나 원로대신들을 보살펴야 했으며, 왕진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중국으로 가는 사절이나 왜국으로 가는 통신사절에 삼사(정사, 부사, 서장관)를 수행하여 의관(醫官)과 양의(良醫)를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약재를 변정하고 의학 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를 질의 응답하거나 혹은 의약과 관련 없이 시문을 창화(唱和)하거나 필담을 요청받아 의약문화사절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는 감영이나 관아에 의국(醫局)이나 관약국을 설치하여 지방의료를 담당하였으며, 의료시혜가 미치지 않는 지방에서는 사대부나 향반을 중심으로 약계(藥契)를 조직하여 약재를 장만하고 의원을 고용하여 지역의료를 지탱하기도 하였다. 강릉의 약계, 동춘 가문에서 주도한 회덕향약의 의약계, 상주지방의 사람들이 운영한 존애원(尊愛院)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민간의료의 일단을 보여준다.

## 7. 당대 의학과 의서

-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조선시대 민족의학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견인차는 모두 세종치세에 투자된 지식기반에 기틀을 둔 덕택이다.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집현전 학사들을 대거 투입하여 대형 의방서인 『향약집성방』(1435)과 『의방유취』(1445)가 만들어졌고 전문의학서로서 법의학을 다룬 『무원록』, 산과의 『태산요록』, 구급의 『구급방』이 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전, 중기 수많은 방역서와 한글의서가 간행되었으며, 선조대에 이르러서 세계적인 의학명저이자 한국의학을 대표하는 의학서 『동의보감』이 탄생할 수 있었다.

역사가들은 우리나라 3대 의서로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을 꼽으며, 우리는 여기에 동무 이제마가 지은 사상의학서 『동의수세보원』을 더하여 우리나라 4대 의서로 자리매김하기에 손색이 없다. 또 여기에 더하여 필자는 근대 의학서 4종으로 황도연의 『의종손익』, 황필수의 『방약합편』,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과 석곡 이규준의 『의감중마』를 드러내고자 한다.

우리 의학에는 수많은 명의들과 그들이 남긴 의학서가 전해진다. 고려시대에는 김영석의 『제중입효방』, 최종준의 『어의촬요방』, 그리고 『향약구급방』 등이 전하며, 조선에 들어서 『향약채취월령』이 만들어졌고, 조선을 건국한 경세가 삼봉 정도전도 『진맥도결』을 지었다. 김안국은 『구급방』, 『태산집』, 『창진방』을 언해하여 펴냈으며,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와중에도 『언해구급방』, 『언해태산집요』, 『언해두창집요』와 같은 언해의서를 편찬한 사실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서양학문을 접한 최한기는 한역 서의서를 읽고 이것을 자주적인 입장에서 이해하여 풀이한 『신기천험』을 남겼으며, 이수광의 『지봉유설』, 서유구의 『인제지』, 정약용의 『마과회통』과 『의령』 등이 실학자나 박물학자들이 연구한 의학서이다.

## 마치며

우리 의학은 ‘이득지물(易得之物), 이험지술(已驗之術)’을 모토로 의토성(宜土性)과 경험의학에 기초한 향약의학을 토대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신지식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인 의학의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질병 중심의 고식적인 의학관에서 탈피하여 예방의학적 치미병(治未病)의 정신을 인간 중심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훗날 이 땅에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체질의학이 주창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다.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한 창조적인 자기혁신을 통해 늘 새로운 의학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전통의학, 그것은 우리 민족사의 영욕을 함께 했던 그루터기 같은 존재라 하겠다.

## 참고문헌

- 안상우, 이경성, 김종덕, 『이제마 평전』, 한국방송출판, 2002.
- 안상우 외, 『역대의학인물열전(Ⅰ～Ⅴ)』,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2011.
-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儒醫列傳』, 들녘, 2011.
-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들녘, 2011.
- 안대회, 『조선의 프로페셔널』, 휴머니스트, 2007.
- 한대회, 『허준은 살아있다』, 수서원, 2000.
- 유희영 외, 『한국의약인명사전』, 의성당, 1991.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전문가의 일생』, 글항아리, 2010.

# 경제이론으로 본 전통시대의 사채(私債)

조 영 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경제이론으로 본 전통시대의 사채(私債)

도박과 환락으로 유명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Las Vega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변화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화려한 건물과 휘황찬란한 불빛의 이면에는 하수구를 전전하는 노숙자들(homeless)이 있으며, 이들 중의 일부는 길거리에서 구걸(panhandling)을 하기도 한다. 도박이나 마약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 경우도 있겠지만, 노숙을 하게 된 일반적 이유는 따로 있다. “노숙을 하기 전에 당신을 괴롭힌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청구서(bill)’라고 답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교육받은 멸절한 직장인도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한 상황에서 날아드는 청구서를 막지 못하면 노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비단 라스베이거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금융(finance)이며, 청구서가 바로 그 일례이다. 매월 배달되는 각종 요금 고지서, 할부금이나 임대료 청구서 등은 우리로 하여금 잠재적 채무자(potential debtor)임을 각인시키며,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적금, 펀드, 연금, 보험 등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납입한다. 현대인이 금융과 분리되어 살아가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금융의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인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역시 사채(私債)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서 미소금융(microcredit)같은 정책을 펼치기도 하지만, 소액의 사금융(私金融)은 역시 ‘사채’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범람하는 대부업 광고는 소비자의 욕구나 의지를 꿰뚫어 보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대부업등록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연리(年利)의 상한(上限)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의 사채 금리는 연 수백%를 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사채 중에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일수(日收)이다. 일수는 일종의 분할납부(installment) 방식의 금융으로서, 납부 빈도와 방향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정기적(定期的)’으로 상환(償還)한다는 점에서 통상적 할부거래인 월부(月賦)와 마찬가지로의 기법이다. 한국 전통의 사금융 기법으로는 장리(長利), 계채(稵債), 시변(市邊), 낙변(落邊), 월수(月收) 등이 있지만, 일수처럼 현대까지 존속되는 사례는 드물다. ‘일수쟁이’가 까만색의 조그만 손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점포와 점포를 돌며 수금하는, 소위 일수 ‘찍는’ 모습이 우리에게겐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일수란 “원금과 이자의 합(元利合計)을 상환할 일수(日數)로 나눈 금액을 매일 수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920년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발간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

典)』에도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으며, 그보다 앞선 1905년의 『대금포규칙(貸金舖規則)』에서도 등장한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어느 일수쟁이의 회계장부는 조선 최대의 도시 서울에서의 ‘일수놀이’가 19세기말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890년부터 기록된 『순봉장책(順奉長冊)』, 『순봉책(順奉冊)』, 『일봉책(日奉冊)』의 세 장부가 대표적이다. 이들 장부에는 1908년 초에 이르기까지 44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120건의 일수 거래가 기록되어 있다.

장부의 속을 들여다보면, 한 면에 네 건씩의 일수 거래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매 건의 대부(貸付)는 일자(대부일자), 성명(차입자), 금액(원금), 일수(매일 상환할 금액), 기간(상환일수)의 기록으로 시작되며, 월별로 행을 구분하여 매일의 상환 내역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나가고 있다. 여백에 남대문의 싸전을 의미하는 ‘남문 미전’이나 석우(石隅)를 가리키는 ‘돌모우’가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차입자의 전호(塵號)나 동네가 기재되기도 하였다. 해당 일자의 납입 실적은 돈이 들어왔음을 뜻하는 ‘입(入)’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표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일수를 ‘찍는’ 행위였던 것이다. 만기(滿期)까지의 상환이 완료되면 마지막에 ‘ㄱ’이라고 표시하여(고문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원물제(人原物際)의 ‘제(際)’에 해당) 일수 ‘찍기’가 끝났음을 확인하였고, 전체 상환 내역 위에 커다랗게 ‘×’ 표시를 해서 대부가 청산(清算)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전호나 동네를 확인할 수 있는 대다수의 차입자가 분포한 지역은 지금은 소실(燒失)되고 만 남대문(南大門) 일대였다. 서울의 대표적 관문(關門)으로서 출입 인구가 독보적으로 많았던 남대문의 안팎에는 창내장(倉內場)과 칠패(七牌)라는 두 개의 큰 시장이 있었다. 이들 시장에서 상업에 종사한 상인들을 포함한 서민(庶民)들이 일수 금융을 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 빈도가 높았던 주요 고객은 쌀가게(米塵), 잡화상(床塵), 술집(酒家), 과일가게(毛塵), 신발가게(繩鞋塵) 등을 운영하는 자들이었다.

고지도(古地圖)를 참조하여 차입자들의 소재지를 복원해 보니, 남대문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도성(都城) 내외의 약 25개 동리(洞里)였다. 이 정도면 걸어서도 하루 동안 차입자들의 점포를 모두 방문하여 일수를 ‘찍을’ 수 있는 충분한 범위이다. 달리 보면, 이 일수쟁이는 매일 일수를 ‘찍으러’ 다니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전업적(專業的) 대금업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포구(浦口)의 객주(客主)가 상업(위탁매매)과 금융업(환換 또는 어음於音)을 겸하고 있었던 것과는 차별화되는 한 가지 특징이다.

또한 차입자들의 일숫돈 사용이 일회성(一回性)에 그치는 경우는 적었으며, 오히려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쓰는 쪽이 일반적이었다. 전체 443명의 차입자 중에서 62명이 10회 이상의 잦은 빈도로 거래하였는데, 이들의 대출 건수가 1천 건이 넘는 정도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익명성(impersonality)에 기반한 금융시장이었다기보다는 신뢰(trust)를 바탕으로 한 단골(frequenter)과의 대면거래

(face-to-face transaction)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개별 거래 내역을 전산 입력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수놀이’의 전형적(typical)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대부를 개시한 초기에는 자본금의 투입을 통해 거금(巨金)이 연속적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일시적으로 순익(純益)이 마이너스가 되지만, 매일의 상황이 누적되는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을 쉽게 돌파하여 자금 팽창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된다. 연평균 순이익은 7천여 냥(『일봉책』)에서 1만 6천여 냥(『순봉책』) 사이로 계산되는데, 이를 토대로 역산(逆算)해 보면 각 장부 기준의 자본금이 약 4만 냥(『일봉책』)에서 8만 냥(『순봉책』) 사이였던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당시의 서울에서는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현재의 우리은행)이나 한성은행(漢城銀行, 현재의 신한은행)과 같은 근대적 금융기관인 은행(銀行)을 정점으로 하여 전당포나 대금포(貸金鋪)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위계(hierarchy)를 가지는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각 금융기관에 의해 예금 및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국고금(조세금)이나 어음의 취급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1898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일수쟁이’ 정도의 자금력은 상등(上等)의 전당포(典當鋪) 2~4개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는 서울 안 수십 곳에 난립하고 있었던 전당포와는 대조적으로, 이 ‘일수쟁이’가 망라한 상권(商圈)이 남대문 인근의 하층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을 시사(示唆)한다. 당대 하층 상인들이 참여한 금융시장은 근대적 금융기관 중심의 상층 금융시장과는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수가 고리대(usury)의 일종임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의 이자율은 과연 얼마나 높았을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장부상의 기록 중에는 1백 냥을 빌려가서 매일 1냥 2전씩 100일 동안 갚는 경우와 매일 1냥씩 120일간 갚는 경우가 보인다. 둘 다 원리합계가 1백 2십 냥이므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은 20%로 동일하다. 5백 냥을 빌려 쓰든 1천 냥을 빌려 쓰든 대출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거래의 열 건 중 아홉 건 이상에서 이 ‘20%’라는 숫자가 도출되지만, 이것을 일컬어 이자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자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term) 개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간을 고려한 실제의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적 경제이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이자율은 사실상 채권(債權)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계산하면 된다. 복잡한 산식(算式)이지만 재무용 계산기나 컴퓨터를 활용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20%’인 상황에서 실제의 이자율은 오직 상환일수에 의해 결정되며, 앞의 예에서 100일간 갚는 경우와 120일간 갚는 경우의 각각에 대하여 연간 이자율이 136% 및 114%로 차이가 남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환일수가 길어질수록 연간 이자율이 하락하는, 상환일수와 연리(年利) 사이의 역관계가 기간구조(term structure) 그래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현대 경제에서의 전



형적인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이 우상향(右上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또한 실제의 연평균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무려 84%나 된다. 당대의 농촌 이자율이 연 30~50% 정도였고, 도시의 전당포에서는 연리를 최대 60%까지 적용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이자율이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 한국에서 가끔 기삿거리가 되곤 하는 200% 이상의 사채 금리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고리(高利)임에는 틀림없다. 예나 지금이나 일수라는 금융기법에서는 상환기간이 20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단기금융(短期金融)으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급전(急錢)을 차입하는 사람이 체감(體感)하는 금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인 ‘20%’보다는 높았을지 몰라도 실제 이자율인 80%대까지 이르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금 대 이자의 비율이 ‘20%’로 고정된 사례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연원은 영조대(英祖代)인 1746년에 반포(頒布)된 법전 『속대전(續大典)』에서 찾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전(戶典)」의 ‘징채(徵債)’조(條)를 보면, “모든 채무의 징수에서 공과 사를 막론하고 10분의 2가 넘는 이자를 받는 자는 장(杖) 80대, 도(徒) 2년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가 규정하는 연 이자율은 18세기 중반부터 이미 20%로 동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농촌의 사금융이나 도시의 전당포에서 20%라는 이자율 제한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기 어려웠고, 개항 이후인 19세기말이 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1906년에 제정된 법률인 『이식규례(利息規例)』에서는 계약상의 이자가 원금에 대하여 연 40%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자에 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없을 때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 20%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해 둬으로써, 정부는 사실상의 금융관행을 인정하면서도 20%라는 『속대전』에서의 규정을 폐기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미 20세기에 들어선 시점에도 이 일수장부에서 『속대전』의 규정에 강하게 속박되고 있는 듯한, 마치 경로의존적인(path dependent) 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일수쟁이가 사인(私人)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금융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왕실(王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관영(官營)이었을 수도 있다. 특히 대출이 1907년 말까지만 이루어지고 1908년부터의 새로운 기록이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1907년에서 1908년에 이르는 시기는 통감부(統監府)에서 황실의 조달기관(調達機關)인 1사7궁(一司七宮)을 폐지하고 국유(國有)와 제실유(帝室有)의 재산을 분리하는 등 황실재정(皇室財政)의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 과정에서 이 일수업도 명맥(命脈)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

만약 국가나 왕실이 관계한 사업으로서의 일수놀이였다면, 채권(債權)의 회수상황에서도 어떤 특징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스스로 상환의 현상(現狀)을 적고 있는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다. 『순봉책』의 면지(面紙)에 ‘1894년(甲午) 8월 17일 회계(會計)라

고 하여 받을 돈(收捧錢)이 모두 합해 32,198냥 4전인데 아직 받지 못한 돈(未捧條)이 6,564냥이고 받은 돈(實捧條)이 25,634냥 4전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총 채권액(債權額)의 약 20% 정도가 연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만기일 이전에 전액을 상환한 사례가 전체 거래 건수의 약 68%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중에서 27% 정도는 연체되기는 했지만 결국 전액 회수되었다. 회수 불능의 채권, 즉 채무 불이행(default)의 사례가 전체 건수의 약 5% 수준이었다. 현대 한국의 정책금융 시대와 비교해 보더라도 불량채권(不良債權)의 비율이 낮은,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 5%에 속하는 불량채권을 유발한 차입자에게도 다시금 대출을 해 주는 사례가 보이고 있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蕩減)해 주는 경우도 더러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온정적(paternal) 대부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특징은 담보(擔保) 설정에 #서도 나타난다. 인적 담보로서의 보증인(保人) 설정과 물적 담보로서의 전당(주로 집문서, 家券)이 모두 행해지고 있었지만, 둘 다 전체 건수의 10%도 되지 않았다.

이상의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일수쟁이는 소규모 영세금융을 필요로 하는 하층 상인들을 동반자로서 끌어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거액(巨額)의 자본금을 투하했으면서도 광범한 운용 범위(coverage)를 보이고 있었고, 안정적 인간관계에 기반한 대면적 신용 거래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섭비용(bargaining cost)도 필요하지 않았고, 불이익(penalty)도 부여되지 않았다.

이 일수쟁이의 기록은 근대적 금융기관이 포말회사(bubble company) 형태로 출몰(出沒)을 거듭하던 전환기 조선의 수도 서울에서 근대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는 전통의 금융기법이 어떤 형태로 잔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또한 『실록(實錄)』과 같은 기념비(monument)의 거대 담론에서는 기술되지 않았던, 상층의 금융시장과는 분리된 서민 경제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

이 기 봉

국립중앙도서관



# 근대를 들어 올린 거인 김정호

## ◆ 목 차 ◆

### I. 서두

### II. 본론

1. 한 손에는 지리지를, 다른 한 손에는 지도를
2. 산 넘고 물 건너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
3. 위치 정보가 진짜 풍부한 나라, 조선
4. 정확한 지도의 제작을 위한 조선인의 고민과 해결
5. 김정호는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는가?
6. 김정호는 왜 지도와 지리지를 동시에 편찬했는가?
7. 김정호의 지도책은 세계문명사 속에서 왜 위대한가?

### III. 말미

## I. 서두

1.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을 답사하고 백두산을 일곱 번이나 올라가면서 측량했을까?
2. 김정호가 평생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 II. 본론

### 1. 한 손에는 지리지를, 다른 한 손에는 지도를

- 옛날에 길을 찾아가기 위해 지도를 만들었을까?

요즘처럼 모르는 곳을 여행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현대인이 길을 찾아가기 위해 지도를 만들었다는 선입관을 갖는 것은

현재 자신이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로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 옛날에도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현재보다는 훨씬 적지만 옛날에도 먼 길을 가야 할 사람이 있었다. 서울과 전국의 중요 지역의 소식을 전하던 역군, 전국의 고을과 군사기지에 파견된 지방관과 호위꾼, 장시를 수없이 오가는 장돌뱅이, 강과 바다를 통해 물자를 나르던 배꾼이 대표적이다. 그러면 이들은 지도를 보며 길을 다녔을까? 그랬을 리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길을 이미 손바닥 보듯이 모두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 그러면 양반이 과거보러 갈 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양반이 혼자서 길을 가는 경우는 없다. 그들은 이미 길을 알고 있는 하인을 데리고 다니며, 조선에는 길을 모르더라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역원과 주막이 곳곳에 발달해 있었다.

※ 전통시대 왕은 전국을 한 곳도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통치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중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지리지를, 다른 한 손에는 지도를”이라는 문구가 왕의 전국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전통시대 지도는 가보지 않고도 전국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이었다.

## 2. 산 넘고 물 건너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

- 근대식 측량 지도는 항상 우수한가?

거리와 방향을 정확하게 측량한 성과를 이용하여 제작한 근대지도가 항상 우수하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짓눌러 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거리와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지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거리와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지도를 너무 많이 본다. 또한 관광지를 가도, 군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모든 버스 정류장에 붙여놓았던 지도는 거리와 방향이 정확했던 것인가?

- 전통시대에는 어떤 거리 정보가 필요했는가?

근대식 지도 위의 직선거리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겐 정말 불편한 정보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걸어 다닐 때는 등산을 갔을 때다. 그때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근대식 지도 위의 직선거리는 하등 필요가 없다. 산 넘고 물 건너 구불구불 돌아가는 실제 거리가 중요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

이 걸어 다녔던 전통시대에는 어떤 거리 정보가 필요했을까? 너무 쉬운 질문이 아닐까.

- 거리를 재는 기계, 기리고차(記里鼓車)의 역사적 의의

세종 때 정확한 거리를 재기 위해 제작했던 기리고차(記里鼓車)는 ‘1리를 기록할 때마다 북이 울리는 바퀴달린 마차’이다. 이 기계로 거리를 재는 원리는 일정한 둘레의 바퀴가 몇 바퀴 돌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현대의 자동차 계기판에 거리가 표시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그러면 이 때 측정되는 거리는 근대적 측량처럼 지표 위의 평면 거리인가? 당연히 아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구불구불 실제로 가는 거리다.

- 거리 단위 1보(한걸음)의 비밀

걸어서 거리를 재는 것은 편차가 없을 수 없어 사람들은 근대식 측량에 비해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모두 걸어 다니던 시대에 걸어서 거리를 재는 것이 그렇게 비합리적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합리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300보가 1리이며, 계속 걷다 한번 쉬어가는 1식이 30리로 9,000보다. 30리는 대략 반나절에 가는 거리이고, 조선시대의 역(驛)은 30리마다 1개씩 설치되었다. 이런 거리 측량 방법이 비합리적일까?

※ 지금까지 언급한 거리 이야기는 조선뿐만 아니라 땅길 위주의 모든 전통문명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땅길 위를 걷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는 산 넘고 물 건너 구불구불 실제로 가는 거리다. 이런 조건 속에서라면 근대적 측량에 의한 지표면의 평면 거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것이다.

### 3. 위치 정보가 진짜 풍부한 나라, 조선

- 중앙집권국가 조선과 전국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는 전국 모든 고을의 중요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지리지다. 그러면 세종은 왜 이런 지리지를 만들라고 한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전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 모든 고을의 중요 정보를 중앙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국가인 조선은 전국지리지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했으며, 일본이나 중세 유럽의 영주국가와 같은 지방분권적 국가는 그럴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

- 어느 날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고 놀랐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만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조선 최고의 지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고



을에 수많은 거리와 방향의 위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지도 제작의 가장 기초가 된다.

- 조선후기에도 전국지리지의 편찬은 계속되었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지리지는 거의 모든 고을의 면과 마을까지 수록한 『여지도서』(1765)와 주제별로 편집된 『동국문헌비고』 속의 「여지고」다. 여기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못지않은 양의 위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정조·순조·헌종·철종 때도 비록 완성되지 못했지만 전국지리지 또는 도별지리지의 편찬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외에도 각 고을에서 독자적으로 편찬된 읍지 역시 부지기수였다.

- 조선후기의 그림식 지도책에도 위치 정보가 풍부하다

위치 정보는 지리지에만 있던 것이 아니다. 1720년대 전국 모든 고을과 중요 군사기지의 그림식 고을지도책이 편찬되었는데, 이곳에는 면, 창고, 길, 산줄기, 물줄기, 해안선의 정보가 자세하다. 이렇게까지 자세한 고을지도책이 편찬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경우다.

- 조선보다 위치 정보가 풍부하기는 쉽지 않다

고을 단위의 전국지리지와 지도책이 편찬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고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리는 중앙집권체제여야 한다. 조선이 중앙집권체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전통문명의 국가 중 중앙집권체제를 이룬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따라서 지도 제작을 위한 위치 정보의 확보에서 조선은 전통문명의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 나라였다. 그런데 전국답사설이나 백두산등정설을 기초로 한 김정호의 전기에는 위치 정보가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나라로 조선을 묘사하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 4. 정확한 지도의 제작을 위한 조선인의 고민과 해결

- 정확한 지도의 제작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정확한 지도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방향과 거리 정보가 있으면 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점을 중심으로 동북 방향 10km 지점에 있는 지도를 10만분의 1로 줄이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동북 방향 10cm 지점에 찍으면 된다. 모든 지점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정확한 지도가 제작될 수 있다.

- 수준 높은 지도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제작될 수 있다

지도 제작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수준 높은 지도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제작될 수 있다. 왜? 그들이 이용한 위치 정보는 산 넘고 물 건너 구불구불 실제로 가는 거리이며, 방향 정보도 동서남북 네 방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는 거리를 평면에 그대로 그리면 왜곡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따라서 전문지도 제작자는 거리 정보에서 높이와 구부러진 정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 정보를 계산해 내야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 지도의 정확성과 자세함은 지도 제작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냐는 첫째, 얼마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둘째, 얼마나 풍부한 위치 정보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정확한 지도의 제작 원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모든 전문지도 제작자는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었다.

## 5. 김정호는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는가?

-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만 만들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김정호’ 하면 떠올리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동여지도』이며,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하나의 지도로부터 시작되어 만들어져 떠돈다. 하지만 김정호는 『대동여지도』한 작품만 남길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평생 동안 연구하여 작품을 만들었던 김정호가 만약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는가?

- 남북 약 7m 안팎의 초대형 지도책을 9종이나 남겼다!

김정호는 1834년 이전에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의 『조선도』 26책이나 츠크바대 학교 도서관의 『동여도』 17첩을, 1834년에 『청구도』 2책을 만들었다. 1834년부터 1849년 사이에 내용과 체제가 다른 3종류의 개정판 『청구도』 2책을 만들었으며, 1853년 경에 병풍식의 필사본 『대동여지도』 14첩을 제작한다. 이어 1853년에서 1856년 사이에 필사본 『대동여지도』 18첩을, 1856년에서 1859년 사이에 필사본 『동여도』 23첩을 제작한다. 드디어 1861년에 목판본 『대동여지도』 22첩을 간행하고, 1864년에 일부 틀린 부분을 교정하여 목판본 『대동여지도』 22첩을 재간한다.

- 소형 목판본의 보급용 지도도 제작했다.

1834년에 친구 최한기의 부탁으로 근대식 세계지도인 목판본 「지구전후도」를, 1840년대에 서울지도인 「수선전도」와 세계지도인 「여지전도」를, 1861년에서 1866년 사이에 조선전도인 「대동여지전도」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 전국 고을단위의 지리지도 5종이나 남겼다!

1834년 이전부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을 큰 글씨로 쓰고 다른 지리지와 지도 자료를 통해 바뀌었거나 틀렸거나 더 첨가해야 할 내용을 깨알 같은 글씨로 여백에 써내려간 『동여편고』 2책을 편찬한다. 1834년 이후부터 1840년대까지 20책의 『동여도지』를, 1850년대 초반에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3책의 『동여도지』를 편찬한다. 1853년에서 1856년 사이에는 최성환과 함께 20책의 『여도비지』를 편찬하고, 드디어 1861년에서 1866년경 사이에 그의 마지막 작품인 15책의 『대동지지』를 편찬하다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 6. 김정호는 왜 지도와 지리지를 동시에 편찬했는가?

- 김정호는 전통문명의 국가인 조선에서 산 사람이었다

‘한 손에는 지도를, 다른 한 손에는 지리지를’이라는 문구가 상징하는 것처럼 전통문명의 어느 국가도 효율적인 전국 통치를 위해 지도와 지리지를 동시에 편찬하여 이용하였다. 조선 역시 전통문명의 국가였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며, 조선 사람이었던 김정호도 이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전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치를 통해 부정부패가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도와 지리지를 평생 동안 동시에 편찬하며 살았다.

- 지도와 지리지의 장단점

지도는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전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지역에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글로 쓰인 지리지는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눈에 전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국 통치를 위해 지도와 지리지는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 김정호는 계속 개정판을 낸 사람이었다.

김정호가 남북 7m 안팎의 지도를 9종이나 편찬한 첫 번째 이유는 만들고 나서 보면 이용에 불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청구도』를 제작하고 나서 세 번이나, 『대동여지도』 역시 제작하고 나서 네 번이나 개정판을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의 제작도 추구했지만 그것은 항상 두 번째 이유였을 뿐이다. 지리지 역시 편찬하고 나서 계속 이용에 불편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래서 계속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며 이용에 편리한 방식을 찾아 개정판을 냈다고 보면 된다.

- 김정호의 작품 중 『대동여지도』가 가장 우수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에서, 나아가 김정호의 작품 중 『대동여지도』가 모든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책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김정호는 이용의 모든 측면을 지도책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늘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기존의 장점이 사라지기도 하는 등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들어갔다. 김정호의 작품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라는 질문으로 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 김정호는 이용의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는가가 그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7. 김정호의 지도책은 세계문명사 속에서 왜 위대한가?

- 조선에는 김정호 이전에도 훌륭한 지도가 아주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 제작자로서 김정호만 알고 있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첫 번째로 만든 사람은 정상기(1678~1752)였고, 1740년대에 제작된 그의 지도를 모두 연결하면 남북 2.5m 정도 되는 대형이었다. 1769년경에 정철조가 정상기의 지도와 크기는 같으면서 더 자세한 지도를 제작하였고, 1770년에 신경준이 남북 약 6m 안팎에 이르는 초대형 지도를 제작하였다. 김정호가 처음으로 제작한 지도책의 내용이나 모습은 신경준이 제작한 지도의 것과 동일하다.

- 남북 7m 안팎의 초대형 지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지도는 크고 정확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책을 모두 연결하면 남북 약 7m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렸다면 그것은 펴놓을 곳도 없고 펴놓더라도 보기가 어려워 쓸모없는 지도일 뿐이다. 근대 이전 우리나라 만한 크기의 전통문명 국가에서 남북 약 7m 안팎이나 되는 초대형 지도를 그려 이용하는 경우는 쓸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두 연결하면 남북 7m 안팎이나 되는 초대형 지도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문명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도책으로 묶었다.

우리나라만한 크기의 국가에서 남북 7m 안팎이나 되는 초대형 지도를 그려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동일한 크기의 면으로 나누어 책으로 묶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김정호도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2권의 책으로 묶은 『청구도』를 만들어냈는데, 근대 이전 전통문명의 국가에서 이런 형식의 지도책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

랑해도 괜찮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만:1 도로지도책과 『청구도』는 동일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으로, 김정호는 이미 170년 전에 현대에 사용되는 지도책의 아이디어를 『청구도』에 구현하였다.

- 최고 수준의 찾아보기지도(색인도)를 만들었다.

남북 약 7m나 되는 초대형 지도를 수많은 면으로 나누어 지도책을 만들 경우 혁신적인 찾아보기 방식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이용하기 정말 불편하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만:1 도로지도책의 경우 가장 앞쪽에 전국이 숫자가 적혀 있는 수많은 면으로 나누어진 찾아보기지도(색인도)가 나오고, 실제로 이용할 지도 위의 각 면에도 동일한 숫자가 적혀 있어 찾아보기 쉽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170년 전에 편찬된 『청구도』에도 찾아보기의 아이디어가 10만:1 도로지도책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 각 면에 축척을 표시해 주었으며, 기호의 사용 범례가 표시되어 있다.

현대의 10만:1 도로지도책의 각 면에는 지도 위의 거리를 실제 거리로 환산할 수 있는 축척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 『청구도』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면에 축척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현대의 10만:1 도로지도책에는 기호를 많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해 기호의 사용 범례가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에도 기호가 정교하게 사용되었고, 이용자들을 위해 기호의 사용 범례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결국 김정호는 현대 지도책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아니 170년 전에 이미 구현한 것이다.

※ 김정호는 근대적 측량성고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지도의 제작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근대를 들어 올린 거인, 아니 현대를 들어 올린 거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문명 국가에 살면서 이렇게 현대 지도책의 모든 아이디어를 구현한 사람을 세계문명사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만약 찾아낼 수 있다면 강사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란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김정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지도 제작사 속에 빛나는 최고의 위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큼 평생 열심히 연구하며 살았고, 그의 작품 속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를 뛰어넘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 미완성의 『대동지지』를 보며

- 진정한 학자의 성스러운 죽음이 느껴진다!
- 미완성을 남기는 것은 꿈을 가진 자의 특권이다!

※ 김정호는 어떤 사람인가?

- 하루라도 연구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진정한 학자였다!
- 항상 이용의 문제를 고민한 출판인이었다!

### Ⅲ. 말미

김정호의 삶이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 주요 저서

이기봉,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 새문사, 2011.

이기봉, 『조선의 지도 천재들』, 새문사, 2011.

이기봉, 『평민 김정호의 꿈』, 새문사, 2010.



朝鮮後期の 收藏家  
: 조선시대 個人後援의 다원성과 중층성

박 효 은

홍익대학교





# 朝鮮後期の 收藏家

## : 조선시대 個人後援의 다원성과 중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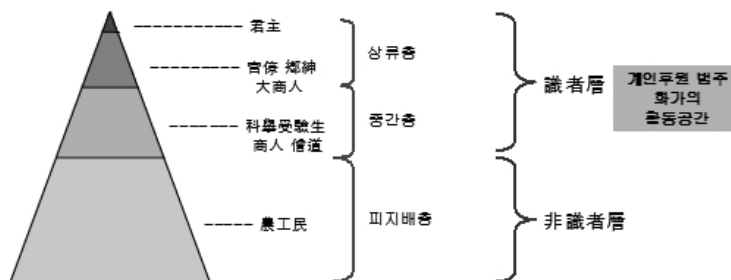
### ◆ 목 차 ◆

1. 조선시대의 개인수장가와 미술시장
2. 17~18세기 양반층의 회화수집
3. 18세기 중인층의 회화수집

## 1. 조선시대의 개인수장가와 미술시장

### 1) 개인후원(private patronage) 범주의 층위:

전근대 동아시아 화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미술후원의 일반유형은 궁정후원(court patronage), 사원후원(temple·church patronage), 개인후원(private patronage)이었다. 그 중 개인후원에는 유통·매매의 공간, 화가-후원자 네트워크, 양자 사이를 오가며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적 화가의 공간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개인수장가는 書畫古董蒐集과 藏書蒐集 활동을 병행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회화와 각종 시각이미지 및 서적을 수집하는 한편으로, 동시대 조선화가에게 소장품을 임모하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개인수장가는 단지 수집활동에만 전념했던 것이 아니라 동시대 조선화가의 작업을 이끌었던 화단 후원자이자 조선 회화의 주요 소비자이기도 했던 바, 조선후기에 진경산수화·풍속화·남종화의 유행을 이끌었던 주문자의 핵심에 이들 개인수장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림 1) 전근대기 미술시장의 수요층에 관한 일반도식

## (1) 유통·매매의 공간

書畫鋪 : 공공의 개방된 미술시장, 미술상 활동. 古畫의 流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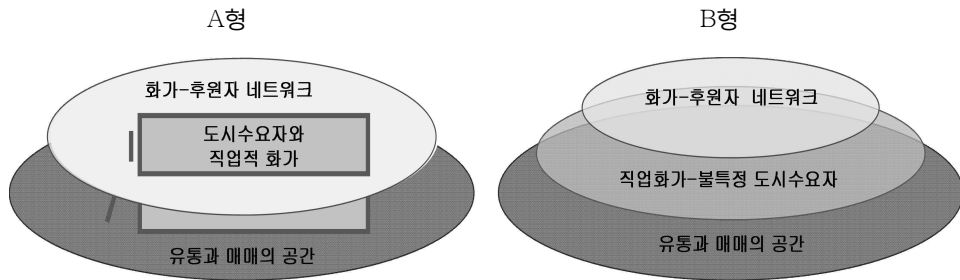
- 廣通橋의 市廛, 梨峴七牌의 亂廛, 기타 藥鋪, 香廛, 紙廛, 屏風廛 등  
權尙夏, 『寒水齋集』卷22, 「書從子變虛舟畫軸後」. 본래 權燮 집안에 家傳되던 작품으로, 도둑맞았다가 1680~90년대 즈음에 市廛에 賣物로 나와 있는 것을 權燮이 사와서 개장함.  
個人的 私邸(書齋) : 私的이고 은폐된 미술시장, 중개인 활동.
- 許筠의 四友齋 경영(陶淵明·李白·蘇軾, 그리고 허균 자신), 丹城 梁思訥의 별장에 묵고 있던 1607년에 李生이라는 자가 世祖 때 文臣의 詩卷에 安堅의 佛畫(釋迦·彌陀)가 곁들여진 《詞翰傳芳》을 가져오자 종이 200장과 바꾸어 수장함.  
이병연의 翠麓軒·老燭齋, 李夏坤의 宛委閣·萬卷樓, 金光遂의 尙古堂·來道齋, 金光國의 葆光堂·抱拙堂·翠雲書屋 등

## (2) 화가—후원자 네트워크

대개 서울·경기지역에서 배출된 개인수장가/문장가가 동시대 화가를 후원하였다.

- 궁정관련층 : 이용(안평대군) - 1445년 이전, 대략 1435~1445년 사이에 안견 작품 30점이 포함된 총 222점의 고서화소장품 조성.  
이후원(완남부원군), 이요(인평대군), 이영(인흥군)·이우(낭선군, 萬古藏)·이서구 등
- 양반층 : 윤근수, 이항복, 허균, 최립, 이제신·이수준, 신희·신익성, 이정구 이래 연안 이씨 집안(이철보·이복원·이풍익), 김상헌 이래의 안동 김씨 집안(김수항·김수증·김창흡·김창업·김원행·김조순), 이상의·이하진·이익, 李秉淵, 李夏坤, 金光遂, 이춘제·이일제, 권섭, 조유수·조준명·조귀명, 남유용·남공철, 유한준과 기계 유씨가, 이유원과 경주 이씨가, 서유구, 김노경·김정희, 권돈인, 민영환·민응식·민영익  
cf. 서경주(달성위)·서정리·서유구, 신희·신익성(동양위), 박동량·박미(금양위)·박지원, 윤방·윤신지(해송위), 홍주원(영안위), 홍현주
- 중인층 : (\*유희경), 최기남, 이철, 홍세태, 안호, 金光國·金蓍仁, 마성린, 서상수, 강희언, 정사현, 이민식, 김한태, 변치화, 유지혁·유취진, 이상직·이용립, 오경석·오경연, 김병선, 김석준, 변원규, 이용현

→ 개인후원 범주는 상품화폐경제에 기반해 서화고동을 수집하는 유통·매매의 공간, 동시대 회화의 창작을 지원하는 화가—후원자 네트워크, 불특정 도시민을 위한 직업적 화가의 작업공간을 포괄하며 전근대 한국 미술시장의 원형이다. 특정 후원자(eg. 수장가)와 불특정 고객이 수요자가 된다.



(그림 2) 17~19세기 한국 미술시장 구조의 다원성

## 2) 개인수장가의 화단후원 행위

- 古畵 蒐集(제3자에게서 그림 획득) → 작품 완상, 열람, 감식  
장 소 : 미술상점(서화포), 개인의 서재  
제3자 : 전소장자, 미술상, 중개인, 장황가, 감식가의 활동
- 작업계기 마련(화가에게서 그림 획득) → 작품 주문, 작업 유도  
공사의 각종 행사와 契會·詩社·詩會·書畫會 등에 화가 초청  
私邸에 화가 초청(畵客)  
현물·현금 등으로 그림 주문
- 題詩·題評 활동 → 작품 가치 부여, 감식, 선전 등  
畵評·畵論·畵史·畵家傳의 저술

鑑賞畵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촉발시켜 국내 미술시장의 발전을 가져왔다. 조선후기에 “진경산수화”, “풍속화”, “남종화”가 성행하게 되어 조선 문인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 토대가 개인수장가에 의해 마련되었다.

## 2. 17~18세기 양반층의 회화수집

### 1) 17세기의 회화수집

중국 회화를 수집하여 조선 화원에게 임모시키거나 자신과 관련되는 행사기록화를 그리게 하는 것 외에 감상 목적의 회화를 제작토록 유도하였다. 그래서 문예적 가치를 담은

예술적 경지를 추구하는 회화가 詩書畫一致의 형식에 따라 그려지게 되었다.

(1) 許筠 : 李楨에게 <山靜日長圖> 주문, 李澄에게 小帖에 산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리게 함(마지막의 미인도-아이를 씻기는 두 여인). 형 許篈이 李澄·李瀾에게 각각 임모·임사시켜 완성한 《千古最盛帖》.

(2) 崔岾 : 李滉의 작품 다수를 소장하면서 安堅의 <山水圖>, 李興孝의 <山水圖>, 李滉의 《三清帖》, 作者未詳의 <狼子山圖> 등을 감상하였고, 古畫 鑑識도 했는데, 이백운이 소장한 고화를 안건 작품으로 비정하였다(조선 회화 감식). 李慶胤의 《山水人物帖》에 발문과 찬시 적음. 작자미상의 <山水圖>, <靑山白雲圖>, <溪山雲水圖>에도 識文 씀.

李楨에게 <秋景圖>를 그리게 하기도 했는데, 瀟湘八景 중에 漁村夕照, 烟寺昏鐘, 遠浦歸帆, 平沙落雁을 합하여 李商隱의 詩句(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에 부합하는 詩意圖를 그리도록 했음. 연행사(鄭公)를 따라 北京에 가는 李楨에게 伯夷叔齊와 諸葛亮·岳飛·文天祥의 초상화를 그려올 것, 말 타고 귀향하는 鄭公과 고깃배 젓는 자신과 술병 들고 양자 사이를 오가는 李楨이 담긴 그림을 그릴 것을 요구하기도 함.

(3) 朴瀾 : 박동량의 子, 신흘·이제신의 사돈. 후손 중에 박지원.

李楨의 후원자 이수준·박동량, 李信欽의 후원자 박응복·박동량·박미 집안

『汾西集』卷11, 「丙子亂後集舊藏屏障記」: 집안에 宣祖의 書와 蘭竹短屏, 李英胤의 山水圖屏, 李楨의 彩女圖中屏, 李滉의 竹圖, 金玄成의 書, 李信欽의 山水小屏 소장

cf. a. 『顯宗改修實錄』卷18, 丁亥條(1667년 10월 16일)

b. 李信欽의 자기 선전

c. 具鏊가 瀋陽에서 후한 값을 치르고 사들여온 劉松年의 <觀蓮圖>를 보고 贋作으로 단정함(중국 회화 감식).

## 2) 18세기의 회화수집

윤두서·정선·심사정의 후원자로서의 이병연, 이하곤, 김광수 : 이하곤의 「與畫師書」

## (1) 李秉淵(1671-1751)의 소장품과 화단 후원

中國畫	韓國畫
孟永光, <漁夫圖> 孟永光, 李景芳, <爛芳焦光帖> (1723경) 仇英, <清明上河圖>(1704) <畫馬卷>(17150이전) 馬遠, 李在, 趙孟頫, 錢選, 泰德明, <宋元名蹟>(1723) 許九敘, <山水圖> 작자미상, <畫卷(濠上問答/雪中歸驢)> <西園雅集圖>(17150이전), <清人雜畫小卷>(1723경)	金明國, <畫>(17150이전) 鄭敼, <海岳傳神帖(=海山一覽帖)> (1712), <山水畫卷>(1714), <輞川十二景圖帖>(1715), <金剛 圖帖>, <輞川圖>(1723), <千年松 芝圖>(1731), <大關嶺圖>(1732) <翠麓軒圖>(1732), <嶺南帖> (1733), <四郡帖>(1737) <京郊名勝帖>(1740-41), <山川像>(1743-45), <老燭齋圖>(1743-45) 申瑩, <畫>(1720) 趙榮祐, <老人扶杖圖>(1737경) 沈師正, <疏林茅亭圖>(1749) 작자미상, <翠麓軒圖>(1716), <睡帖> <雲閣四景帖>(1723), <畫帖> (1724)

## (2) 李夏坤(1677-1724)의 소장품과 화단 후원

中國畫	韓國畫
<三代寶繪帖> 馬遠, <山水圖>, 趙孟頫, <馬圖>, 기타 다수 杜冀龍, <江南春圖> (김성하-나얼에게로) 陳鑑如, <李齊賢肖像> (이담경 家藏, 1703)	恭愍王, <陰山大獵圖 殘片>(이우 후손 가 구장, 1722) 李澄, <桃源圖>(이명곤 소장, 1704) 卞良, <虎圖>(한필상 가전 <匪懈堂眞 蹟>과 바꿈, 1705) 작자미상, <山水圖>, <寫生折枝, 花果 松竹>, <孔雀仙鶴, 龍虎牛馬> (1708경) 尹斗緒, <老僧倚柱聽流泉圖>(1708), <萬馬圖卷>(1713 이전), 화첩3-4점, 障子 다수(17130이전) <馬圖>(최익한에게서, 1722) 申範華, <女俠圖>(1722) 鄭敼, <四時屏畫(=四季山水帖)>(1719) cf. 주문했으나 수장여부 불분명한 예 <內山總圖>(1715), <陶山書院 圖>(1721), <輞川圖>(1723)

## (3) 金光遂(1699-1770)의 소장품과 화단 후원

中國畫	韓國畫
沈周, <莫碎銅雀硯歌圖> 俞嶺, <八駿圖>, <○○도>(조영석에게) 仇英, <清明上河圖>(서상수에게)	鄭敼, <丘壑帖>(1721-26), <輞川圖> (1723), <社稷盤松圖>(1728), 李匡師, <高僧玩繪圖>(김광국에게) <層嶂飛瀑圖>(김광국에게) 趙榮祐, <賢已圖>(김광국에게) 沈師正, <臥龍菴小集圖>(1744, 김광국에게) 진 심사정, <傲仇英山居圖> 작자미상, <海運雙遊圖>(1746)

### 3. 18세기 중인층의 회화수집

#### 1) 金光國(1727~1797)

俞晚柱, 『欽英』, 第21冊, (1786년) 4月 23日條, .....又見列上畫譜 譜石農畫苑也

俞漢雋, 『著菴集』, 自著, 卷11, 「石農畫苑跋」(1795년)

洪夷周, 『學海』, 7冊, 「石農畫苑序」(1794-96년)

(1) 《韓景弘眞蹟》 중의 「趙孟頫書跋」과 王世貞 글

(2) 《石農畫苑》 중의 외국회화

(3) 《石農畫苑》 중의 조선회화

《石農畫苑》所載 68點 繪畫의 畫目別 分類

畫目/主題		朝鮮畫(全62[67]점)			外國畫(全7점: 홍성하본*5 +기타2)
		전형필본(全28점: 27+[미확인 尹斗緒1])	홍성하본(全32점: 27+외국화5)	기타(全14점: 7+외국화2+[미확인5])	
山水	觀念/ 四季	安堅 秋林村居圖 姜希顔 青山暮雨圖 石敬 溪山清樾圖 鄭敼 平遠山水圖 趙榮祐 水村老柳圖 崔北 雲山村舍圖	金翊胄 罷釣歸來圖 李喜英 山水圖 金履燮 山水圖	柳命吉 湖心泛月圖 [유환덕 山水圖]	
	詩意	金明國 松下問童圖	安祐 韋應物詩意圖 成載厚 杜甫詩意圖 元命雄 山水圖	金龍行 古樹秋色圖	
	倣古	金昌業 秋江晚泊圖 李匡師 層嶂飛瀑圖 沈師正 擬董北苑山水圖 (倣黃公望)山水圖 元命雄 (倣王蒙)桃源春色圖 洪啓純 高士觀瀑圖	曹世傑 秋林書屋圖 元命雄 倣倪瓚山水圖 金應煥 雨景山水圖 2점 李義山 山水圖 梅廚 柳隱村舍圖	[金應煥 山水圖 2점]	
	實景	鄭敼 江亭晚眺圖 沈師正 臥龍庵小集圖 萬瀑洞, 三日浦 山水圖(明鏡臺)	金喜誠 山水圖		
人物	道釋/高士	李霆 問月圖 李匡師 高僧玩繪圖	金廷秀 仙童圖	[金弘道 神仙圖] 李慶胤 松下高士圖	
	風俗 (文人/美人/ 生活/胡風)	趙榮祐 賢已圖, 老僧携杖圖	吳命顯 老人倚松圖 申漢梓 (中國)美女圖 姜熙彦 出獵圖	尹斗緒 石工攻石圖 尹德熙 馬夫圖	趙孟頫 胡騎鷹獵圖 피터 생크* 스타니에프경 作者未詳* (日本)美人圖
動植物	草蟲/ 花卉/ 四君子	申師任堂 水墨葡萄圖 李霆 風竹圖 鄭敼 松林寒蟬圖 姜世晃 綠竹圖, 墨蘭圖	吳俊祥 墨梅圖 姜舜天 墨竹圖 申緯(徽) 墨竹圖 姜佖 墨菊圖 沈象奎 墨蘭圖 朴善壽 墨蘭圖 許昇 怪石秋花圖 辛師說 水仙怪石圖	趙速 墨梅圖	程龍* 墨蘭圖 托諾* 墨竹圖
	花鳥/ 翎毛		朴維城 群鳥圖 黃杞 虎圖	[申師任堂 花鳥圖] 金淨 二鳥和鳴圖	呂紀 花鳥圖 金富貴* 駱駝圖
總計		전체 69[74]점: 68점 확인			

# 우리나라의 산대희

손 태 도

한국예술종합학교





## 우리나라의 산대회



산대회(山臺戲)는 ‘산대(山臺)’라 하여 거대한 산모양의 구조물을 좌우에 설치하고 그 위, 아래에서 광대와 기생들이 가무백회를 하는 축제적 행사였다. 이러한 산대회의 전통은 ‘동해바다에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와 같은 삼신산(三神山)이 있고 이 산들을 큰 거북이가 떠받치고 있는데, 국가가 태평하면 그 거북이가 춤을 춘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산대회는 그러한 거북이가 춤을 추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동해바다의 삼신산 설화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되었기에 산대회도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문화권의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외국 사신이 올 때는 당사가 태평성대임을 구가하거나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산대회류의 공연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미 신라 진흥왕 때 국가적 행사인 팔관회에서 이러한 산대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신라의 산대회는 다음처럼 고려시대로 이어졌다.



(청) 아극돈(阿克敦)의 '봉사도(奉使圖)'(1725) 20폭 중 7폭

태조 원년 11월에 유사(有司)가 말하기를, “전주(前主)는 매해 중동(仲冬)에 크게 팔관회를 설하여 복을 빌었사오니 빌건대 그 제도를 따르소서” 하니, 왕이 이를 받아들여 드디어 구정(毬庭)에 윤등 일좌를 두고 향등을 사방에 나열하였다. 또 채봉 돌을 맺었는데 각각 높이가 5장(丈)이 넘고, 가무백희를 앞에서 보였는데 그 사선악부(四仙樂府)와 용, 봉, 상(象), 마(馬), 거(車), 선(船)은 모두 신라의 고사(故事)였다. 백관이 포홀(抱笏)로 행례하니 보는 자가 도성을 기울였고, 왕이 위봉루에 출어(出御)하여 이를 보았으며, 해마다 상례로 하였다.

『고려사』, 지, 권23

고려시대는 이러한 천령(天靈), 오악(五嶽), 명산대천, 용신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신들을 섬겨 복을 비는 팔관회 외에도, 부처를 위한 연등회에서도 더욱 성대한 산대회를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이상의 산대회를 한 것이다.



2008년 국립국악원에서의 산대회

조선시대에는 불교적 요소가 다소 있었던 팔관회와 연등회는 폐지되었다. 다만 고려 중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연말 나례(儺禮) 의식(儀式)이 더욱 확대되어 해마다 선달 그믐날이 되면, 방상씨(方相氏), 판관(判官), 소매(小梅), 진자(振子) 등의 가면들을 쓴 사람들을 앞세우고 타악기들을 두들기며 목은해의 잡귀잡신들을 쫓는 일반적인 나례 의식 외에도 궁궐 내에 산대를 설치하여 그 위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연말 분위기와도 관련 가무백희도 즐겼다. 조선시대에는 전래의 산대회의 가무백희가 이 연말 나례회에 집결된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 큰 경사가 있거나 중국 사신이 올 때는 이러한 매년 있었던 연말 나례회를 더욱 확대하여 보다 성대한 산대회 공연을 하였다.

산대회는 원래 좌우로 나뉘 서로 경쟁하는 것이기에 후대로 갈수록 더욱 성대해지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 때는 다음처럼 산대의 높이를 60척 곧 20m 정도로 제한 적도 있었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산대의 높이는 상세한 규정이 없어서, 산대를 댕을 적마다 좌우편이 서로 높게 하려고 하므로, 바람이 심하면 혹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대의 기둥이 땅에서부터 60척 이상을 더 올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를 따랐다.

『세종실록』, 8년 2월 28일(임진)

산대의 규모가 가장 대단했던 조선 중기 때는 어느 정도였을까?

좌우 양쪽이 각기 춘산(春山), 하산(夏山), 추산(秋山), 설산(雪山)을 만드는데, 산마다 상죽(上竹) 3개, 차죽(次竹) 6개가 필요하고, 상죽은 길이가 각기 90척, 차죽은 각각 80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일기』, 12년 9월 3일(정축)

이로 보아, 조선 중기의 산대는 가장 큰 나무 기둥이 90척 곧 27m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럴 경우, 나무 기둥을 땅에 묻어 고정시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높이는 25m 정도였을 것이다. 또한 좌우 산대는 좌우 2개의 산모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 좌우 양쪽에 각기 춘·하·추·동 등 계절에 따른 4개의 산봉우리들을 각기 만드는 것이기에 그 높이도 높이려니와 그 전체적인 규모도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실학축전 때의 산대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것이다.

산대에는 삼신산에 있다는 궁궐, 사찰, 인물, 동물, 화초들을 실제처럼 만들었는데, 날짐승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록으로 보아, 실제 살아 있는 새들을 날린 것으로 여겨진다.

조학소(造鶴所)에서 쓰는 날개가 흰 거위 외에도 채 봉 위에 배설할 살아 있는 까마귀, 까치 각 50마리, 살아 있는 수리부엉이, 매, 따오기, 올빼미, 비둘기, 꿩 각 20마리, 자송(刺松) 8백 조(條), 대나무잎 5짐, 숙마(熟麻)로 끈 새끼 4천 타래를 경기 각 고을로 하여금 금월 24일이전까지 배정하여 상납하게 하라.

『연산군일기』, 11년 12월 18일(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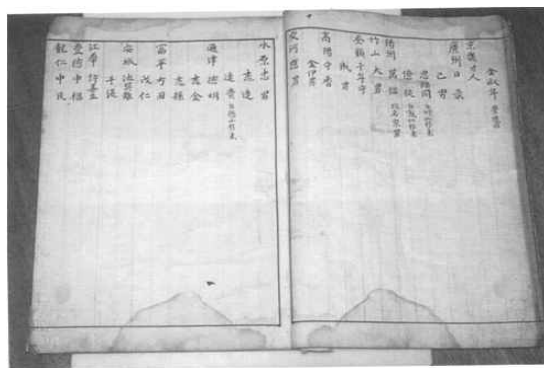
산대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그러한 산대를 바탕으로 한 연출도 참으로 볼 만한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산대희에 동원된 광대들의 수는 조선중기의 경우 600명 정도 되었다. 인조 4년의 산대희와 관계되는 좌산대도감의 문서인 ‘나례청등록(儼禮廳謄錄)’ (1626)에는 좌산대도감 소속의 광대들 286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당시 우산대도감 소속 광대들까지 합하면 전체가 600명 정도 되기 때문이다.

노리개짓 하는 희자(戲子)들을 전적으로 전라도에 책임지운 것은 그 수효가 무려 6백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광해군일기』, 13년 9월 5일(계묘)



‘나례청등록’(1626)



‘나례청등록’ (1626) 뒷부분에는 당시 좌산대도감에 소속되어 있었던 286명(경기 30명, 충청 52명, 경상 33명, 전라 171명)의 재인들의 이름이 그들이 속한 지역명과 함께 모두 적혀 있다.

산대희의 공연 종목들은 다음의 동월의 <조선부(朝鮮賦)>(1490)에도 나와 있듯 어룡(魚龍) 유희, 무동타기, 땅재주, 마상재(馬上才), 외줄타기, 쌍줄타기, 솟대타기 등과 같은 기예들과 중국의 요(堯)임금 때는 음악을 연주하면 온갖 짐승들도 춤을 추었다는 『시경』 ‘익직(益稷)’ 편에 있는 고사에 입각한 백수무(百獸舞)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었다.



‘기산풍속도’ 중 솟대타기



시끌벅적 수레와 말 소리가 울리고끝없는 어룡 유희가 나오네.

이하의 글에서는 모두 백희를 베풀어 조신을 맞이하는 광경을 말하였다.

자라는 산을 이고 봉래와 영주의 바다 해를 끼고 있고

광화문 밖에 동서로 두 자리의 오산(鰲山)을 벌였는데, 높이가 광화문과 같으며 극히 공교롭다.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무산협(巫山峽)의 물을 마시네.

사람의 어깨에 두 어린 아이를 세우고 춤을 춘다.

근두(땅재주)를 뒤흔치며 상국(相國)의 꿈은 비교할 것도 없고

긴 바람에 울거니 어찌 소금 수레를 끄는 기마(驥馬)가 있겠는가?

많은 줄을 따라 내리매 가볍기는 신선과 같고

숫대를 타기 위해 뛰어오르며 양산귀(梁山鬼)인가 놀라 보노라.

장식한 사자와 코끼리는 모두 말가죽을 벗겨 만든 것이고

춤추는 봉황새와 난새는 크고 작은 꿩꼬리들로 만든 것이네.

<조선부(朝鮮賦)>



2004년 경기도 실학축전 때의 줄타기

이 외에도 동해바다의 선녀가 수명 장수하는 복숭아를 바치는 궁중 가무인 <헌선도(獻仙桃)>, 고려시대 이색의 <구나행(驅離行)>에 언급된 토화(吐火, 불 토하기), 탄도(呑刀, 칼 삼키기), 조선시대 『문종실록』에 소개된 규식지희(規式之戲)인 광대(廣大, 큰가면 춤), 서인(西人), 농령(弄鈴, 구슬들던져받기), 소학지희(笑謔之戲)인 수척(水尺), 승광대(僧廣大) 등이 나오는 본산대 계통 탈놀이, 오늘날 남사당놀이로 전승되는 꼭두각시놀음, 접시돌리기, 발탈 등도 있었을 것이다.



2009년 국립국악원 야외 산대회

이러한 산대회를 중국 사신이 오는 경우에는 평양, 황주, 개성, 서울 등지에서 연이어 하였는데, 서울에서의 산대회가 가장 화려하였다. 서울에서의 산대회는 광화문 앞에 대규모 고정 산대들을 세웠는데,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남대문에서 광화문 앞의 대산대들 앞까지가 산대회의 연행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남대문에서 광화문 앞 대산대들에 이르는 산대회 공연을 본 조선중기의 류희춘(1513~1577)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초6일 눈이 오다. 바루[罷漏] 후에 태평관으로 갔다. 사시(巳時)에 제상(祭床)과 용정(龍亭) 보다 먼저 광화문 앞에 이르니 제상(祭床) 280개가 연달아 이르렀다. 백관이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용정이 이르자 더욱 허리를 굽혔다. 그것은 조칙(詔勅)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칙을 담은 것이 셋이요, 향을 담은 것이 하나다. 이날 오산(鰲山) 잡희에 재인들을 두었는데, 그 기이한 재주부림과 구경거리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두 조사(詔使)는 차분하게 수레를 멈추고 구경을 하였다.

‘미암 일기 초(草)’, 1568년 2월 6일

이러한 산대회는 조선후기 인조 때 다소 약화되어 국내의 경사와 관계되는 대규모 산대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된다. 중국 사신이 오는 등 국제적 관계에서만 산대회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갑진년 곧 1784년 이후에는 사실상 대규모 산대회는 열리지 않게 된다.

**지난 갑진 이후 좌우 산대가 설행되지 않았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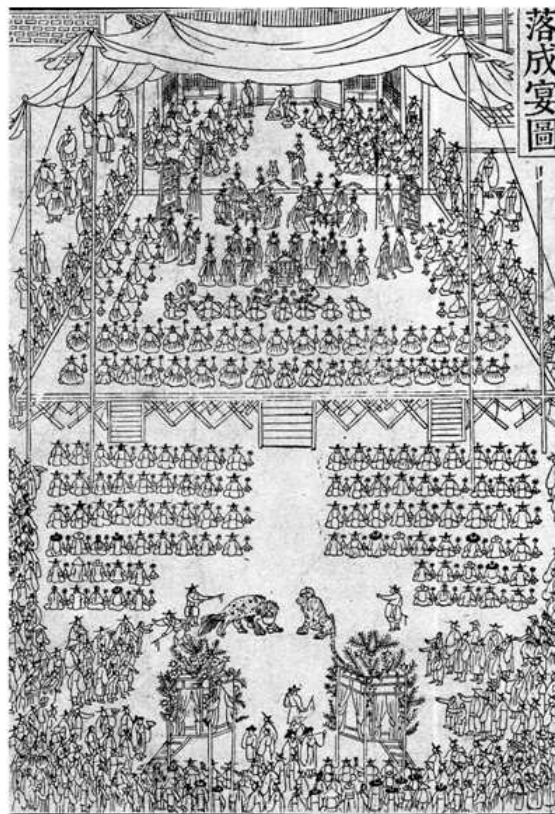
‘갑신완문(甲申完文)’(1824)

**갑진 이후에 조산의 규칙이 깨지자 우리 우리들도 곧 한산해지게 되었다.**

‘경기도 창재 도청안(京畿道唱才都廳案)’(1836)



그러나 이러한 1784년 이후에도 중국 사신이 오면 산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 보듯 그 이후에도 광대들은 여전히 산대회 때의 참가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여 관의 인정을 받고 있고, 그들이 국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산대회임을 언급하고 있다.



정조 20년(1797) 화성 낙성연

좌우 산대가 무대처럼 보인다.

완문(完文) 등장(等狀) 팔도 재인(八道才人) 오른쪽 완문(完文)은 거행하는 일의 갖추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팔도 재인 등은 병자년 이후로 칙행(勅行)을 위해 당연히 좌우 산대를 설치하고 거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지난 갑진 이후 좌우 산대가 설해되지 않았으나, 전례(前例)에 기록되어 있는 칙행(勅行) 때에 나누어 맡긴 것들이 있어 각 도 재인들이 그 도(道) 소임의 청에 대기하고 있는즉, 팔도 재인 중 명칭을 허락받아 임직을 가진 자들이 많아 매번 착란(錯亂)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이르러 옛법으로 갱신해서 준행하고자 하여 팔도 도령위(都領位) 임직에 있는 자들이 행방 회의를 한 후, 각 도(道)의 소임에 다만 한 사람씩만 차정(差定)하되 공청도 재인 중 팔도 도산주(都山主) 겸 도대

방(都大房), 경기 재인 중 팔도 우산주(右山主) 겸 도집강(都執綱), 전라도 재인 중 팔도 좌산주(左山主) 겸 도집강(都執綱)

‘갑신완문’(1824)

방국(邦國)의 대사를 당하여 이를 가르칠 적에는 청중(廳中)의 공론을 통하여 가리어 정하고 행나례(行儼禮)로써 말아야 할 것이다.

전남 나주 ‘선생안(先生案)’(1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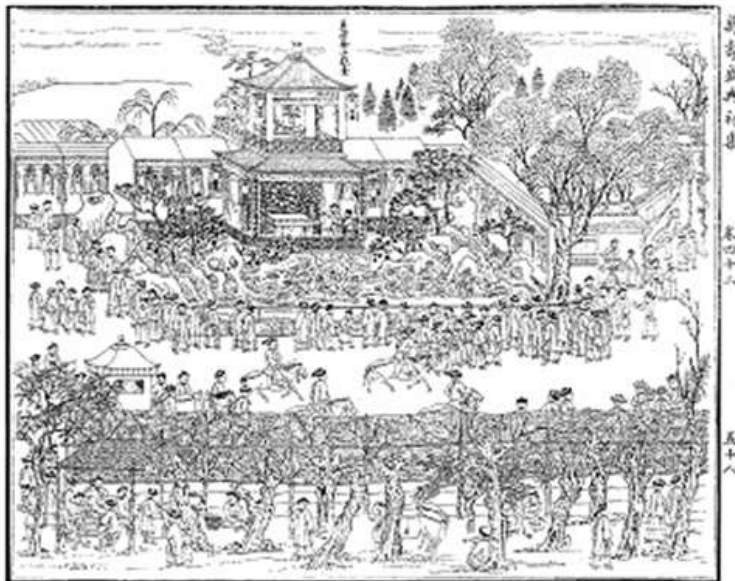
1884년 외무대신 공관에서의 줄타기

이러한 전통 사회의 대표적 축제 행사로서의 산대회는 중국, 우리나라, 월남, 유구(琉球,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 등에 있었으나, 월남의 경우는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었는지 별로 알려진 것이 없고, 유구의 경우는 중국 사신을 맞이해 가무백회를 한 기록들은 있으나 산대를 만든 것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어렵다. 중국의 경우는 초기에는 이 산대회를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하였으나, 송나라 이후에는 크게 약화되었다.



명대 <헌종행락도>의 산대회

송나라 이후에는 원나라의 원곡(元曲), 명나라의 희문(戲文), 청나라의 경극(京劇) 등 무대극 중심의 이른바 대희(大戲)로 그 공연의 관심이 옮겨졌기에 산대희와 같은 잡극은 크게 쇠퇴하게 된 것이다.



청대 <강희만수도> 중 산대  
산대 자체보다 산대 위에 2층 누각에서의 공연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송나라 효종 2년(1164)에는 이러한 국가의 산대희를 공식적으로 맡아 하던 예능 집단인 악호(樂戶)들이 해산되었다. 국가에서 산대희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예능 집단들을 임시로 동원해서 하는 정도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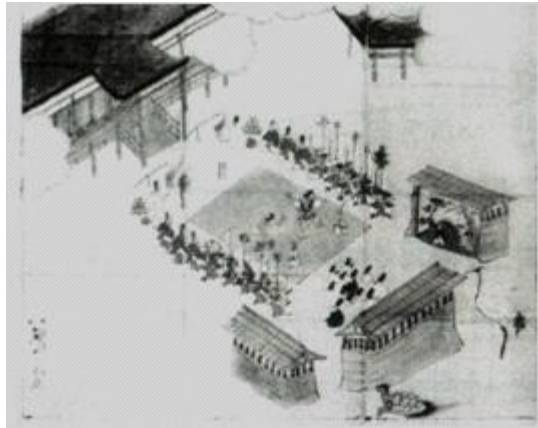
안상복, 「송(宋)·금대(金代) 잡극(雜劇)·원본(院本) 연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논문, 1996, 28쪽.

일본은 중국과의 조공 관계가 없어 산대희가 이뤄지지 않아 782년에 이러한 산대희에 동원되던 예능 집단인 산악호(散樂戶)가 이미 해산되었다.

河竹繁俊, 이응수 역, 『일본연극사 (상)』, 청우, 2001, 162쪽.



2004년 산대희에 동원된 중국 기예단



일본 사찰에서의 엔넨(延年) 학과 거북의 모양이 보이는 정도다.

<남도 일승원 엔넨무도(南都一乘院延年舞圖)>

반면 우리나라는 다음의 1894년 갑오경장 때의 ‘창우(倡優)’ 곧 광대 집단의 천인 신분  
의 해방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중국 사신이 오면 근대 무렵까지도 산대회를 하는 것으로  
여겨 그러한 산대회에 동원되는 광대 집단을 근대 무렵까지도 하나의 신분 집단으로 유지  
하고 있었다.

역졸이나 창우(倡優), 백정(白丁)들에게 모두 천인의 신분을 면해 줄 일

『고종실록』, 31년(1894) 7월 2일(병자)

같은 동아시아권의 산대회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산대회가 가장 오래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매년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산대회의 성격상 우리나라의 산대회가 자연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발달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익(1681~1763)은 쌍줄타기, 외줄타기, 솟대타기와 같은  
산대회의 공연 종목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것이 중국의 것에 비교해도 뛰어나 있고, 이를  
본 청나라 사신들도 그러한 우리나라의 기예들이 ‘천하에 없는 것’ 곧 ‘천하제일’이란  
말들을 하고 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고 있다.

지금 세상에 우인(優人)이 하는 줄타기가 있는데 …

요즘에 와서 이 재주는 더욱 교묘해져서 마주서서 춤추는 것 외에도 능히  
땅재주도 넘고 해금도 연주하며, 크게 흔들리며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도 능히 떨어지지 않으니 그 재주가 교묘하고 민첩한 것이  
이와 같다. 물어 보니 외줄타기가 쌍줄타기보다 쉽다고 한다.



쌍줄타기 '운흥사 (雲興寺) 감로탱'(1730)

또 솟대타기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에 이런 기예들이 아주 뛰어나 중국 사신이 와서 보고 '천하에 없는 것'이라 한다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창우(倡優)의 정재(呈才) 놀이들일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다 비열(卑劣)한데, 오직 창우만이 졸(拙)하지 않으니 가히 민망하고 괴이할 뿐이다.

이익, 『성호사설』, 5권 만물문(萬物門) '답색연장(踏索緣橦)'

역시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도 당시 행해지던 쌍줄타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줄타기는 천하에 없는 거라 줄을 타고, 거꾸로 서며, 거미처럼 매달린다. 그 외 가면을 쓴 이가 등장하는데 중국 사신이 와서는 손뼉을 치네.

東國撞竿天下無 / 步繩倒空縋如螭 / 別有傀儡登場手 / 勅使東來掌一抵

<성시전도(城市全圖)>

‘당간(撞竿)’은 솟대타기를 말하나 여기서는 쌍줄타기로 볼 수 있다. ‘괴뢰(傀儡)’도 흔히 인형극을 말하나 가면극이 될 수도 있다.



쌍줄타기 '흥국사(興國寺) 감로탱'(1868)

당시 제국이었던 중국의 사신들이 '천하제일'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그 말 그대로 사실이 있을 것이다. 산대회는 비록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신라 진흥왕 때부터는 시작되었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조선시대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이뤄져 조선후기 때는 같은 동아시아권에서도 우리나라의 산대회가 최고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동해바다에 있다는 삼신산인 봉래·방장·영주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금강산·지리산·한라산이라 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오늘날 서울의 전체 지도 모양이 동해에서 온 거북이가 삼신산들을 떠받치고 있는 모양인 것도 흥미롭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대회는 오늘날과 같은 축제의 시대에 다시 한 번 그 전통을 이어 재현해 볼 만한 것이다. 그래서 2004년 경기도 실학축전에서 이러한 산대회가 처음으로 복원되었다. 산대는 대·중·소가 있고, 고정된 것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당시 복원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높이 7m 정도의 소산대로 이른바 '예산대(曳山臺)'였다.



당시 행사는 실제 별 내용이 없었지만 전통 사회의 대표적 축제 행사인 산대회가 복원되었다는 관심과 기대로 <동아일보>를 비롯한 많은 일간지들이 여러 번 기사들을 내보냈고, 행사 당일에는 KBS TV 9시 뉴스에도 나오는 등 일반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



2004년 실학축전 때 복원된 산대

이후 국립국악원에도 2008년, 2009년 정월 대보름놀이 행사로 비록 실내 공연장에서이지만 고정된 형태의 산대들을 갖추고 산대회를 하였다. 이중 2008년의 행사는 그 해 연말에 다시 앵콜 공연을 하는 등 상당한 공연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에는 충무아트홀 개관 기념 5주년 기념행사 중 일부로 산대회를 내세우기도 했다.



2009년 국립국악원의 산대회



2004년 실학축전 때의 산대회

적어도 신라 진흥왕 이래 1894년까지도 1,300여 년 동안 국가에서 관리하며 발전시켜 세계 최고로 만들어 온 이 국가적 행사로서의 산대회를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어 오늘날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었으면 한다.\*





# 조선시대의 法醫學

김 호

경인교육대학교



## 조선시대의 法醫學

### ◆ 목 차 ◆

1. 1796년 황해도 평산에서 양반 양성향이 음독 자살하다.
2. 평산부사 유광천 현장으로 출동하다.
3. 조선 최초의 법의학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4. 조선 법의학의 최고봉 『증수무원록언해』
5. 안색(顔色)으로 죽음을 살핀다.
6. 과학 대 비과학
7. 현실에 대응하라.

### 1. 1796년 황해도 평산에서 양반 양성향이 음독 자살하다.

1796년 황해도 평산 서봉방의 장용암 마을에서 한 젊은 남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을 양반 양성향이라는 자가 간수를 마시고 죽은 것이다. 사연인즉 다음과 같았다. 한 마을에 사는 상놈 이춘대의 딸 죽금이는 이팔청춘의 꽃다운 나이였다. 본시 건들거리던 양성향이 죽금이에게 정신이 팔려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차였다. 죽금이가 하루는 개울가에 빨래를 하러 갔는데 양성향이 그만 춘정을 이기지 못하고 뒤에서 달려들어 갑자기 껴안았다. 백주 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하더니 죽금이의 비녀를 뽑아들고는 ‘이제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면서 달아난 것이다.

죽금이 아버지 이춘대는 이 소식에 노발대발하며 양씨 집안으로 달려갔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우리 딸의 혼사길을 막았으니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며 양성향의 아버지 양계수에게 대거리하였다. 심지어 양반인 양계수에게 ‘너 죽고 나 죽자’며 칼을 휘두르는 등 신분사회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였다. 갑자기 상놈에게 봉변을 당했으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아들 놈 때문에 화도 내지 못한 아버지 양계수는 죽금이를 서둘러 시집보내도록 하자며 이춘대를 구슬린 후 집에 돌려보냈다.

사단은 그날 밤 일어났다. 아들 양성향을 본 양계수는 격분하였다. 집안 망신뿐 아니라 양반인 자신이 웬 상놈의 칼에 비명횡사할 뻔 한 것이 더욱 억울하였다. ‘너 같은 놈은 필요없으니 나가 죽으라’고 꾸짖은 것이다. 야심한 밤, 아들 양성향은 간수를 마시고 집 뜰에서 나뒹굴었다. 놀란 집안 사람들이 쌀뜨물을 마시게 하는 등 노력하였지만 그만 죽고 말았던 것이다. 아버지 양계수는 관아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자살한 자식의 죽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는 없지만 이춘대에게 당한 치욕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상놈 이춘대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는 아들의 시체를 상놈 이춘대의 집으로 가져가 놓았다. 일종의 시위였다.

## 2. 평산부사 유광천 현장으로 출동하다.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사또가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야 했다. 평산부사이자 초검관인 유광천은 사건 접수를 받자 곧바로 사체가 있는 장용암 마을로 달려갔다. 의생(醫生), 서기(書記) 등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검시에 사용될 물건을 짚어지고 따라오라고 명하고 자신은 검시보고문안인 시장(屍帳) 몇 장을 접어 가지고 갔다.

먼저 양반 양성향의 시신이 있는 이춘대의 방안에 가 보았다. 방안이 협소하였지만 법례대로 시체와 사방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시체에서 동쪽으로는 벽까지 4척 8촌, 서쪽으로는 벽까지 4척 5촌, 남쪽으로는 벽까지 2척, 북쪽으로는 벽까지 5척 4촌이었다. 방안이 좁아 시체를 마음대로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마당으로 끌어내 판자 위에 놓고 차례로 옷을 벗기도록 하였다. 오작사령이라고 하는 관아 소속 노비 도손이가 일을 담당하였다. 먼저 시신을 덮고 있는 푸른색 면 이불 한 채를 벗겨내자 목면 저고리를 입고 누워있는 양성향의 시신이 드러났다. 바지의 허리띠에는 살아생전에 차고 있던 담뱃갑 하나, 그리고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는데 살펴보니 조그만 거울 하나와 나무 빗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알몸이 된 후 자세히 살펴보니 대략 23~4세 정도의 중간 몸집의 남자였다. 키가 주척(周尺)으로 7척 9촌이고 두발은 흐트러졌는데 2척 5촌이었다. 두 눈을 감고 입은 약간 벌리고 코에서 피가 흘러 나왔는데 전신의 살빛이 누런색이고 배는 팽창하지 않았으며 구타 등의 상처도 없어 보였다. 약물 사고로 추측되었다.

유광천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시체의 앞면과 뒷면을 뒤집어가면서 시장(屍帳)의 항목에 맞추어(조선시대에는 대략 70여 항목의 신체 부위를 기록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조사하고, 독을 먹은지 의심스러워 은비녀를 항문에 집어 넣어보았다. 금방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변을 채취하여 가열하였더니 흰 색의 소금 결정 등이 나타났다. 간수를 마신 것이 틀림없었다. 증거를 찾기로 하고 양성향 집의 공간을 뒤졌다. 두부를 만들려고 만들어 둔 간수 병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 간수를 담아 마셨는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망 원인은 간수를 마시고 죽은 ‘복로치사(服鹵致死)’가 분명하였다.

### 3. 조선 최초의 법의학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죽은 자의 원통함과 남은 가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시대 법의학 지침서로 활용된 책이 바로 『무원록(無冤錄)』이었다. 『무원록』은 원래 중국 원나라 왕여(王與, 1261~1346)가 1308년에 저술한 책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조선, 일본 등지에 전해져 법의학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다.

『무원록』이 간행된 지 100여 년이 지난 1435년(세종17) 조선의 조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종은 최치운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신하들에게 『무원록』의 해설을 명하였다. 이에 최치운 등은 명나라에서 간행된 『무원록』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고 『세원록』과 『평원록』 등을 참고하여 1438년(세종20) 겨울(11월)에 『신주무원록』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1년여의 인쇄과정을 거쳐 1440년 봄 드디어 강원도에서 초판이 발행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중간(重刊)을 거치면서 『신주무원록』은 조선시대 검시의 표준서적이 되었다. 예컨대 중종대 전라도에서 발생한 구질덕 사건의 경우, 독살과 자살 여부를 두고 『신주무원록』의 은비녀 조항이 활용된 적이 있으며, 선조대에는 검험이 끝나고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신주무원록』의 지침을 따르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조선의 사회 구조가 중국과는 달라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무원록』의 경우 비상(砒霜)을 먹고 죽은 조항 자체가 없었다. 중국에서 비상으로 인명을 해하는 사례가 드물었는지 모르지만 조선에서는 비상으로 살해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 『무원록』에 기록은 없지만 ‘비상’으로 죽은 것이 분명한지라 사건을 조사한 사또는 ‘비상치사[砒霜致死]’라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형조에서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 나머지 그만 파직된 것이다.

혹은 임금의 명령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숙종은 무덤을 파내면서까지 검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범인들이 사건 발생 후 재빨리 시체를 땅에 묻어 검험을 방해하는 폐단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는 늘어만 가고 있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1748년(영조24) 간행된 구택규의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이었다. 세종대의 『신주무원록』을 기본으로 쓸데없는 것은 덜어내고 빠진 것은 보충하여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해진다든가 이해가 어려운 문구들과 단어들을 책 앞에 모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 4. 조선 법의학의 최고봉 『증수무원록언해』

한편, 18세기 말 구택규의 『증수무원록』을 이어 그의 아들 구윤명은 더욱 완성된 형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았다. 우선, 순서와 분류를 보다 완전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당시까지 남아 있던 중국식 말투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둘째, 청나라 형부(刑部)에서 만든 『세원록(洗冤錄)』 해설본을 들여와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고 셋째, 오자와 탈자 등 문장을 교정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현실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이었다. 이는 『증수무원록(대전)』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였다. 단지 중국의 『무원록』에 주석을 가한 정도인 조선 초 『신주무원록』을 능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선에서 누적된 다양한 검험 지식과 수사 기법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이라면 모두 첨가한다는 정신이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조목마다 증보한 이 내용[附]이야말로 조선 법의학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구윤명은 문구나 용어 사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학자 김취하의 감수를 받았는데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더욱 완벽한 법의학 서적이 될 수 있었다. 김취하는 본문의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문에 첨삭을 가했는데 여기에 증(增)자를 붙여 구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증수무원록대전』은 보(補)와 부(附) 그리고 증(增)의 과정을 통해 완전히 조선화된 법의학 서적으로 재탄생하였다.

1790년 정조는 서유린에게 『증수무원록(대전)』을 언해하도록 명하였다. 어려운 한문본을 언해하여 널리 보급하려는 목적이었다. 역시 김취하가 시종 작업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듬해인 1791년 언해본 초고가 완성되었고 이후 인쇄에 들어갔으나 우여곡절 끝인 1796년 『증수무원록대전』과 『증수무원록언해(이하 언해)』 두 책은 동시에 인쇄되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두 종의 법의학서가 간행되었으니, 하나는 한문본이요, 다른 하나는 한글본이었다. 이 둘은 1905년 새로운 『형법(刑法)』이 반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검시 지침서로 활용될 정도였으니 그 가치를 십분 알 수 있을 것이다.

## 5. 안색(顔色)으로 죽음을 살핀다.

『언해』가 법의학 지침서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내용의 대부분이 검시(檢屍) 즉 사체 관찰 기술이라는 점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검시의 핵심이 시체의 안색(顔色)을 관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 더 흥미로울 것이다. 20세기 서양의학의 검시(檢屍) 즉 사체를 해부하여 사인을 분석하는 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체의 상태를 중시한 『언해』의 검시 방법은 매우 색다른 느낌을 준다.

사물의 색을 통칭하는 안색(顔色)의 종류에 따라 죽음의 원인을 달리 파악하였으므로 색(色)에 매우 민감하였다. 붉은색(赤色) 계통만 보아도 적색(赤色)으로부터 적자색(赤紫色), 적흑색(赤黑色), 담홍적(淡紅赤), 미적(微赤), 미적황색(微赤黃色), 청적색(靑赤色) 등 매우 여러 단계로 색이 분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적색은 구타나 혹은 목을 맨 상처의 중요한 지표색이었다. 사체가 붉은 색이라면 틀림없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자상

(刺傷)의 경우라면 당연히 선홍색의 상처가 남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체의 색은 죽음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푸른색은 독살, 흰색은 동사(凍死), 황색은 병사(病死)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검시 기술이 안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안색을 위장하여 타살의 흔적을 제거하는 기술도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위장한 상처를 발각하는 방법 또한 개발될 필요가 있었다. 가령 흉기로 구타살해한 경우 상처가 푸르거나 붉은 색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만약 깃버들 나무의 껍질을 상처 부위에 덮어두면, 상흔 안이 짓무르고 상하여 검은색이 되어 구타 흔적을 위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무원록』은 반드시 손으로 만져보아 부어오르지 않고 단단하지 않으면 위장의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범인이 사체를 부검하는 데 참여하는 관원을 사주하여 꼭두서니같은 풀을 식초에 담갔다가 상처에 바르도록 하였다. 그러면 상흔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언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들면 사또는 반드시 감초즙으로 해당 부위를 닦도록 하라. 진짜 상처가 있었다면 즉시 나타날 것이다’

상흔을 위장하지 않았다 해도 사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시일이 오래 경과된다면 시반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피부가 검붉은 사람은 더욱 흔적을 잘 살필 수 없었다. 이 경우 활용된 것이 바로 범물(法物)들이었다.

## 6. 과학 대 비과학

범물이란 검시에 활용되는 보조 도구 및 수단들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100% 순도의 은비녀가 있다. 이밖에도 지게미(槽), 초(醋), 파의 흰 부분, 천초(椒), 소금, 매실 과육 등과 창출(蒼朮), 조가(皂角) 등의 약재도 사용되었으니 지게미, 초, 파, 매실 과육 등은 사체의 상흔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고, 창출, 조각은 시체가 놓인 곳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흔적이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먼저 그 부위에 물을 뿌려 적신 후에 파의 흰 뿌리[葱白]를 짓찧어 상흔이 있는 곳에 넓게 펴 바르고 초(醋)에 담가 두었던 종이를 그 위에 덮어둔 채 한 시간여를 지난 후 이를 걷어내고 물로 씻으면 상처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

『언해』에는 위의 경우처럼 모두 과학적인 수사기법만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



대 과학 기술의 한계로 인해 황당한 내용이 과학적인 수사법으로 둔갑해 수록된 경우도 있다. 핏방울의 응고 여부로 친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조선후기 사회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이 방법은 ‘친자(親子)인 형제가 혹 어려서부터 이별하여 헤어진 후 나중에 알아보려고 하지만 진위(眞僞)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각각 피를 내어 한 그릇 안에 떨어뜨리는데, 진실이라면 하나로 응결하고 아니면 응결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의 응고에 대한 생리적 지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현대인이라면 그저 웃고 말 내용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형제가 아닌 사람에게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했을지 아무도 모른다.

## 7. 현실에 대응하라

『증수무원록언해』을 언급하면서 ‘과학적’이라는 말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바로 ‘현실적’이라는 단어다. 후기로 이행하는 동안 조선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조선전기의 법의학 지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니 연탄가스 사고가 그 중 하나이다. 조선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가스 중독 사건들이 조선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난방용 석탄의 사용이 점증하면서 가스 중독사가 자주 발생했다.

‘서북 사람들이 흔히 온돌을 데우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다가 그 화기(火氣)가 냄새나고 더러운지라 훈증(燻蒸)을 받아 저절로 깨닫지 못하고 죽으니 시체가 부드럽고 상처가 없는 것이 밤에 자다가 꿈에 무서운 것을 보고 놀라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와 흡사하다.’

한편, 사인(死因)을 분석하는 방법과 태도 역시 조선전기에 비해 더욱 세밀해지고 정교해졌다. 죽은 자라도 살찐 사람과 마른 사람을 구분하여 살찌고 젊은 자는 빨리 상하는 반면에 마르고 늙은 자는 천천히 부패한다든지, 또는 남과 북의 기후가 같지 아니하므로 지역의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든지, 산중(山中)의 경우 기후의 변화가 급격하여 시체의 부패 정도에 따른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사건을 조심스럽게 취급하려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는 수법들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전과 사후의 상흔을 구별하는 방법 역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조선초의 『신주무원록』에는 불타 죽은 시체를 검시하는 경우 ‘입과 코 속’의 그을음 여부를 확인하여 생전과 사후의 사망을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 18세기의 『증

『수무원록언해』는 입과 코 속 뿐 아니라 ‘목구멍’과 머리 뒷부분에 그을음과 재가 묻어 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토록 지시했다.

편견 없는 수사, 인체에 대한 지식의 확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신중한 태도. 이런 것들이 『언해』를 관통하여 표출되는 내용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인정(仁政)의 정신이 깔려 있었다. 조선시대 위정자들이 꿈꾸던 ‘어진 정치’, 그것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무원록』의 과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주요 저서

김호, 『조선과학인물열전』, 휴머니스트, 2003.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김호, 『역주: 新註無冤錄』, 사계절, 2003.

김호, 『살인의 진화심리학: 조선후기의 가족 살해와 배우자살해』 (공저), 서울대출판부, 2003.

김호, 『원통함을 없게하라: 조선의 법의학』, 프로네시스, 2006.



# 조선의 역관

백 옥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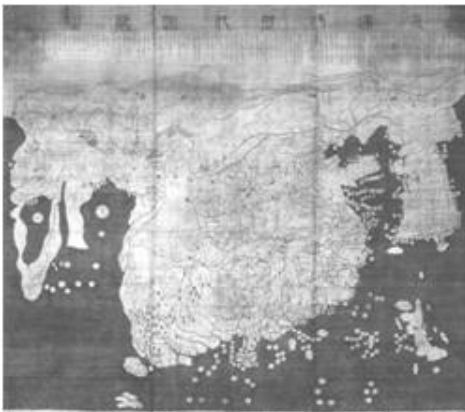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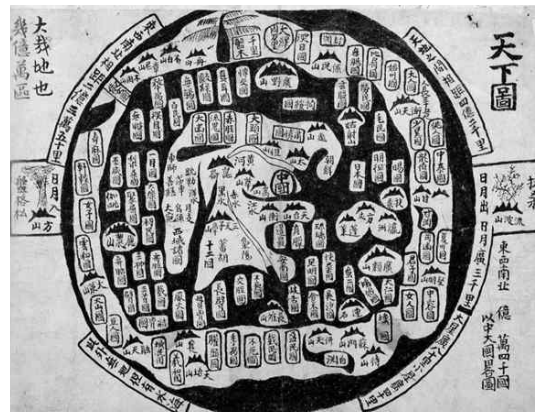
## 조선의 역관

### 조선의 세계

- ◎ 중국(명, 청)
- ◎ 일본
- ◎ 몽고
- ◎ 유구국(현 오키나와)
- ◎ 안남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 ◎ 서양



조선후기 천하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 역관이란?

- ◎ 조선시대 통역 담당자
- ◎ 각종 국제 정보 탐지
- ◎ 국제무역

### ◎ 외국 문물 도입

- ▶ 조선의 외교관계가 그 틀을 닦고 앞으로 뻗어나가는데 필수적인 존재 1393년(태조 2)에 설립된 통역 담당 관서이자 교육기관

## 역관에게 필요한 것

- ◎ 통역 능력
- ◎ 상대국 고위관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교적인 교양 및 학문적 소양
- ◎ 국제감각
- ◎ 세련된 매너

## 역관의 교육

- ◎ 교육기관 : 사역원
  - ▶ 1393년(태조 2)에 설립된 통역 담당 관서이자 교육기관
  - ▶ 산하에 생도방을 두어 생도 모집
  - ▶ 지방에는 역학원을 설립하여 교육
- ◎ 교육생 선발
  - ▶ 10대 위주 : 연소하고 충민한 사람들
  - ▶ 19세기 : 10대 60.2%, 9세 이하 28.4%
  - ▶ 5세 아동의 입학도...

## 회화 위주의 교육

- ◎ 교육언어
  - ▶ 한어, 일어, 몽고어, 여진어

◎ 교수

- ▶ 학생들의 성적과 교수에 대한 인사고과 연계
- ▶ 귀화 외국인을 교수로 배치

◎ 교재

- ▶ 노걸대, 박통사 등 실용회화서

◎ 현장 교육

- ▶ 사행 수행을 통한 실제 경험



노걸대

◎ 번역본 목차

- ▶ 어디서 왔소?
- ▶ 누구에게 무엇을 공부하였소?
- ▶ 어떻게 배우는가?
- ▶ 무엇하러 한어를 배우는가?
- ▶ 스승은 어떤 사람이었나?
- ▶ 동행합시다.
- ▶ 대도의 물가
- ▶ 오늘밤은 어디서 묵어요?
- ▶ 비단과 무명값
- ▶ 대도에서 얼마나 머물겠소?

## 역관의 선발

◎ 취재

◎ 역과

- ▶ 총 19명 정원
- ▶ 역과 합격자 총수 : 2,976명. 잡과 합격자의 약 50% 차지
- ▶ 잡과의 하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



- ▶ 1등 합격자에게는 종7품직, 2등 3명에게는 종8품계, 3등 15명에게는 종9품계가 주어짐

과거합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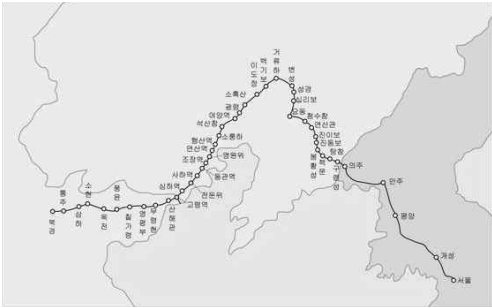
홍패(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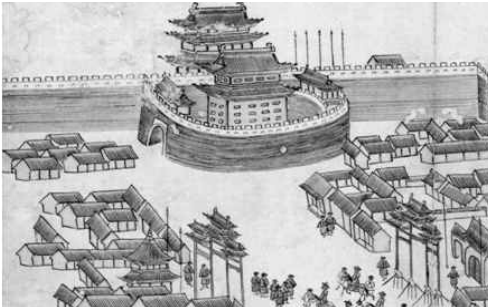
백패(잡과)

## 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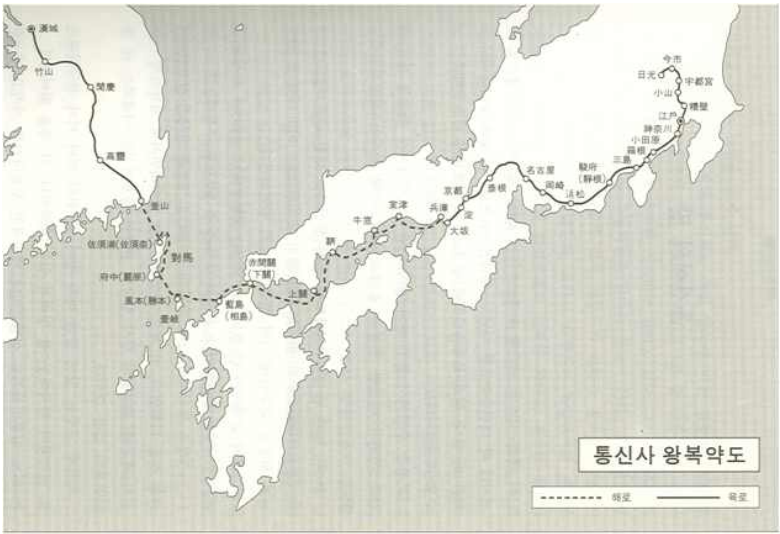
- ◎ 사행수행
  - ▶ 연행사, 통신사
  - ▶ 10~20여명의 역관 수행
- ◎ 조선에 온 사신 수행
  - ▶ 태평관, 동평관, 북평관
- ◎ 왜관 파견



연행사행로



연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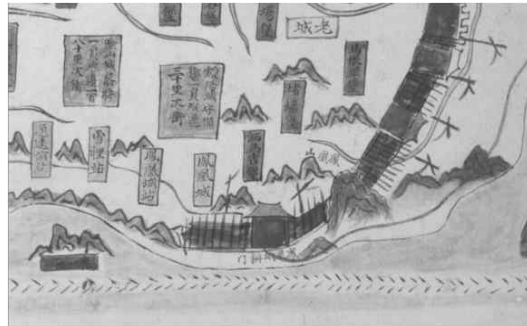
통신사행로



통신사행렬도(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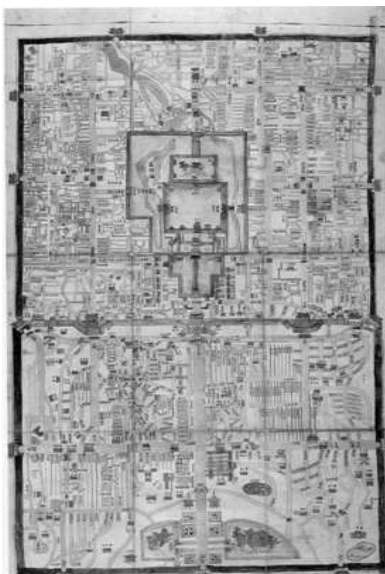
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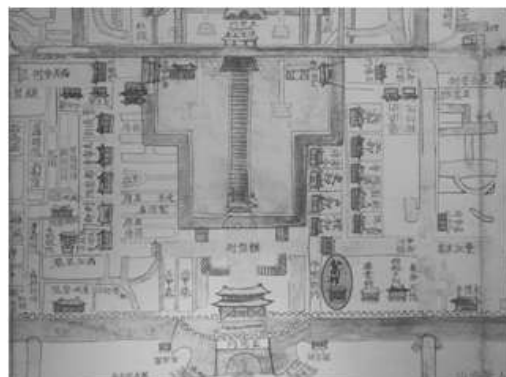
책문(요계관방도)



책문



연경성시도



연경성시도의 회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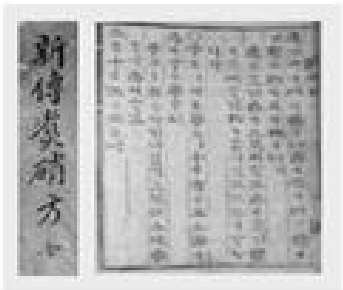
# 정보수집

## ◎ 경국대전

- ▶ 중국사행에 여진, 몽고어 역관 수행하도록 규정.  
일본어역관도 1년에 1차례씩 보내게 함

## ◎ 통문관지

- ▶ 경국대전 조항에 더하여 통신사행 시 한어 역관 2인  
배속하도록 되어 있음



문화교류(김지남)



문화교류



유리창



문화교류(북경 천주당, 관상대)



근대의 역관(김들건)



근대의 역관(오경석)



# 조선의 천문역산가

문 중 양

서울대학교





## 조선의 천문역산가

### 천문역산이란?

- ◎ “天文과 曆數에 밝았다”, “曆象에 밝았다”
- ◎ 算學과 數學의 차이
  - ▶ 산학은 정량적 산술 계산
  - ▶ 수학은 형이상학적 數의 원리 - 易學과 연결
- ◎ 왜 ‘천문역산’인가?
  - ▶ 천문부서의 4가지 업무
  - ▶ 天文, 曆算, 測候, 刻漏
- ◎ 누가 ‘천문역산가’인가?
  - ▶ 중인층 천문역산가 : 觀象監의 관원들, 출신
  - ▶ 사대부 천문역산가 : ①관상감 提調들 ②개인적 관심-학습

### 天文과 曆의 차이

- ◎ 시빈(Sivin)의 구분 : 정성적 vs. 정량적
- ◎ 天文이란 :
  - 주역 계사전
  - ▶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 地理, 人文과 비교된 天文. 즉 하늘의 象
    - “天垂象 見吉凶” → 점성술적 측면
- ◎ 曆이란 :
  - ▶ 尚書 堯典 “欽若昊天 歷象日月星辰 敬授人時”
    - 천체현상의 관측을 통해 때를 파악하고 알려준다
    - 數理天文學



## 天文이란?

- ◎ 현대의 용어로는 astrology?
  - ▶ 현대의 점성술은 속명점성술(호로스코프 점성술)
  - ▶ 동아시아에서는 천변 점성술 : Portent Astrology
- ◎ 司馬遷의 史記 天官書(BC1세기)에서 체계화
  - ▶ 사마천. 漢 제국의 太史令(천문 책임자)
  - ▶ 이후 모든 정사서들이 따름
  - ▶ 한서 천문지, 진서 천문지, 고려사 천문지 등

## 천문(별자리) 체제와 해석

### ◎ 별자리의 분류

- ▶ 史記 天官書(BC100?)
  - 98좌 500여개의 별들을 五官(宮)으로 분류(중궁과 동서남북의 4궁)
  -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제 반영
  - 한서 천문지(1세기경) : 118좌 783개별
- ▶ 晉書 天文志(644년)
  - 중앙의 중궁과 주위의 28宿체제
  - 陳卓의 星圖(310년경)에 기반
  - 238官, 1464星 → 당시 서양은 1180개
- ▶ 步天歌(隨代, 丹元子)에서 3垣 28宿로 체계화
  - 3원 : 紫微垣, 太微垣, 天市垣
  - 28수 : 동방칠수(角亢氐房心尾箕), 북방, 서방, 남방칠수(井鬼柳星張翼轸)

## 천문 체제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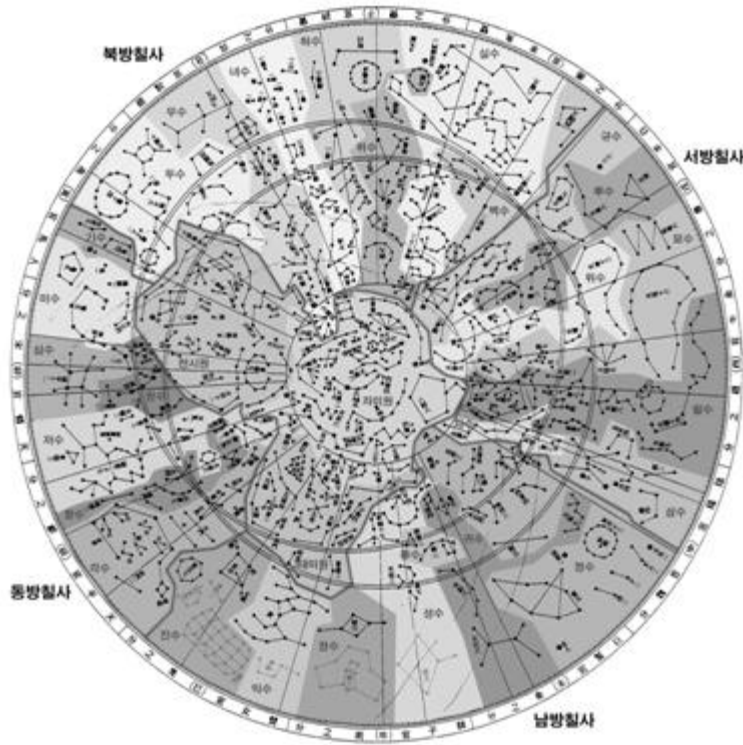
### ◎ 天文을 지상세계의 관료체제와 사물에 대응

#### ◎ 오관체제

- ▶ 중관은 궁정내의 중요 관직과 인물 및 장소
  - 천자를 상징하는 帝王, 三公, 正妃, 후궁 등
  - 황제의 측근들이 거처하는 紫宮 등
  - 그 주위에 여러 계급의 신하들, 호위병 등
- ▶ 주위 사관은 지상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재현

#### ◎ 3원 체계 : 보천가 이후

- ▶ 紫微垣 : 황제와 황제가 사는 궁궐을 상징하는 별자리
- ▶ 太微垣 : 각종의 정부시설과 관리들을 상징하는 별자리
- ▶ 天市垣 : 하늘의 시장



## 천문 해석의 원리와 방식

- ◎ 하늘의 세계와 지상에서의 피상징물을 연결
- ◎ 혜성, 객성 같은 불길한 별이 다른 별자리를 침범,  
그 별자리가 상징하는 것에 불길한 조짐
  - ▶ ‘天床’(황제의 침대)을 객성이 침범하면?
  - ▶ ‘御女’(궁녀)가 밝게 빛나면? 객성이 어녀를 침범하면?
- ◎ 28수 각각에 대한 해석도
  - ▶ 心수가 죽 늘어서면? 황제가 도모하는 바가 실패할 조짐
  - ▶ 尾수의 별들 거리가 멀어지면? 군신 사이에 불화
  - ▶ 火星이 角수 가까이 오면? 전쟁이 일어날 조짐

## 천문 해석에 깔린 믿음

### ◎ 天과 人(하늘세계와 지상세계)의 感應

- ▶ 天은 만물을 주재, 정치의 잘잘못을 천문을 통해 드러냄
- ▶ 天과 감응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天子(황제), 天으로부터 命을 받은 존재, 하늘의 대리인
  - 황제의 절대권력이 가능한 명분

### ◎ 반대로 황제권에 대한 견제로도 기능

- ▶ ‘고대의 기록이 황제권을 견제하려는 관료들에 의해 조작됨’
  - 천문 기록이 실제보다 항상 많다
  - 조작 기록 이외에도 계산치를 기록한 배경도 고려해야
  - 가능성만 있으면 무조건 보고하고 기록한다. 왜?

## 曆이란?

### ◎ 일월오성의 운행과 궤도 등을 계산해서 정리

- ▶ 현재의 수리천문학과 유사
- ▶ ‘觀象授時’의 관념에 따라 매년 曆書를 간행 반포함
  - 天命을 받은 자임을 국내외에 천명
  - 역서를 조공-책봉 관계의 국제질서 확립
- ▶ 천자가 부여한 시간으로 세계를 통일, 통제하는 의미

## 역법의 출발

### ◎ 전국시대 음양력의 틀이 확립

- ▶ 삭망월과 회귀년의 결합을 통한 1년 주기
- ▶ 商代에 29일(작은달), 30일(큰달)의 연대배치
- ▶ 춘추시대에 置閏法 확립 : 19년 7윤법

### ◎ 전국시대 중엽 四分曆 확립

- ▶ 19년의 4배, 76년이 주기

- ▶ 1년=365 1/4, 19년=235삭망월
- ▶ 書經의 “朞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 定四時成歲”의 주해
- ◎ 한 무제 원년(BC 105년), 太初曆 반포가 역법시대의 출발
  - ▶ 唐代의 大衍曆(729~761)
  - ▶ 元代의 授時曆(1281~1644)
  - ▶ 清代의 時憲曆(1644~1912) : 서양식 계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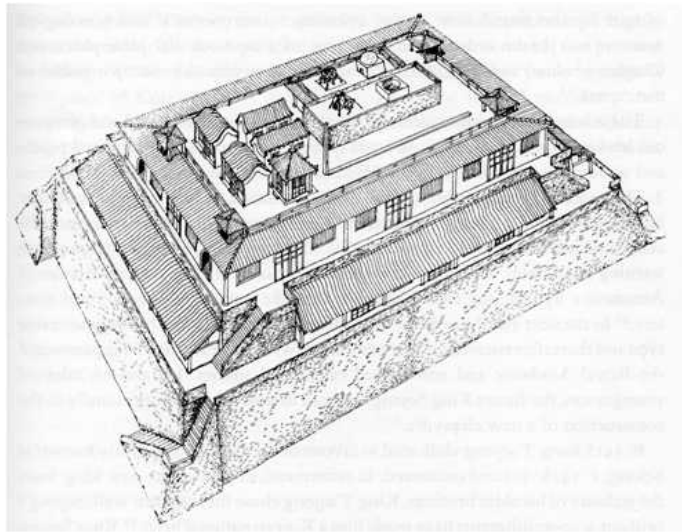
## 改曆의 배경과 역법 발전의 역사적 배경

- ◎ 개력의 배경
  - ▶ 受命改制의 원칙
    - 一朝一曆 → 당송대에 一世一曆 → 명청대 다시 일조일력
  - ▶ 曆은 樂律, 도량형과 함께 중요한 국가 제도
- ◎ 曆 발전의 배경?
  - ▶ 농업과의 연관성?
  - ▶ 국가 의례 시행을 위한 정확한 시각이 필요 : 求食禮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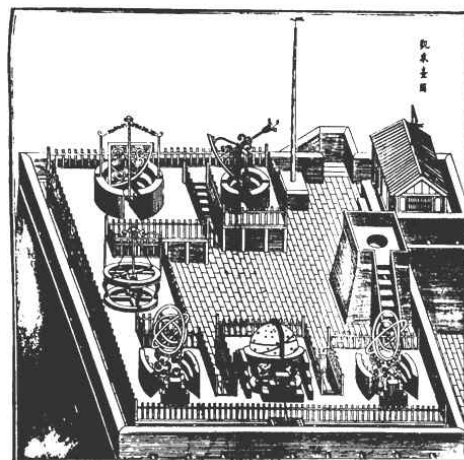
## 天文 曆法은 帝王學

- ◎ 세계의 중심에 천문대 설립
  - ▶ 周代에 周公測景臺 : 하남성 낙양 근처 양성(土中, 地中)
  - ▶ 하지때 8척 表 그림자가 1척 5촌 되는 곳 : 천문학적으로 증명?
  - ▶ 현재 元代 郭守敬이 만든 관천대(40척 높이)가 병준(1276년)
- ◎ 漢 武帝 때 정부 내 제도화 : 태사국과 태사령 설치
  - ▶ 후대의 欽天監 : 1,000여명이 넘는 규모
  - ▶ 천문(의 해석)과 측후(천문 관측) 활동
  - ▶ 역산(曆法계산과 역서 간행)
  - ▶ 각루(시간측정과 報時) : 가장 많은 인력
- ◎ 동아시아 천문학은 궁중과학 : 제왕학

- ▶ 천문의 私習은 원칙적으로 금지(대명률)
- ▶ 현실적으로 사대부들은 천문에 관심, 학습



원대 북경의 천문대



명청대 북경 천문대



## 삼국시대의 천문, 역법

### ◎ 7세기 무렵부터 천문관과 제도 유입, 시작?

- ▶ 삼국사기(1145, 김부식)의 천문 기록들 : 650년경부터 일식 기록이 충실, 신뢰할 만 → 이때부터 천문 사상과 제도적 정착?
- ▶ 신라 : 647년 첨성대 설립, 718년 漏刻典 설치(博士6인, 史1인)
- ▶ 고구려의 ‘日者’라는 관원
- ▶ 백제의 漏刻博士, 曆博士, 日官

### ◎ 5세기부터 중국 역법 도입, 시행

- ▶ 백제 : 5세기 초 쑤 나라의 원가력 시행
  - 이후 일본에 역법을 전래해줌
- ▶ 신라 : 674년(문무왕대) 당나라의 인덕력 시행
  - 이후 당이 개력할 때마다 따라서 개력

## 고려의 천문, 역법

### ◎ 천문제도

- ▶ 초기에 太卜監, 太史局 → 書雲觀으로 합병(1308년)
- ▶ 서운관(1308~1466)
  - 天文, 曆算, 測候, 刻漏의 업무
  - 20명 정도의 관원

### ◎ 역법

- ▶ 초기에 唐의 宣明曆 사용, 충선왕(1309)부터 元의 授時曆 사용
- ▶ 수시력 마스터 못함 : 일월식 계산 등을 전혀 못하고, 날짜 계산 정도만 할뿐



개성 관천대

## 조선의 천문, 역법의 역사적 개요

### ◎ 역법

- ▶ 세종 5년(1423)부터 천문-역법 프로젝트 시작
- ▶ 19년(1437) 무렵 천문관측기구 창제 완료 - 簡儀臺 설치
- ▶ 15년(1433) 역법 마스터 → 24년(1442) 七政算內篇, 外篇
  - 역사상 최초로 독자적 계산 완성 +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 → ‘本國曆’
  - 정인지, 정초, 이순지, 김빈, 김담 등 사대부 출신 역산가들로 이루어진 TF팀의 성과물
- ▶ 효종 5년(1654) 時憲曆 반포로 서양식 계산법 채용
  - 부족한 이해. 1798년에 이르러 완성, 일월오성의 운행과 일월식을 완벽하게 계산 → 서양식 계산법에 기반을 둔 ‘본국력’ 확립
  - 관상감에서 천문관원들(중인)이 주도, 큰 기여

### ◎ 조선의 천문제도 觀象監

- ▶ 관상감의 개요
  - 연혁 : 고려의 서운관을 세조 12년(1466) 관상감으로 확대 개편,

1894년 觀象所 설치로 폐지

- 본감과 부속기관인 禁漏廳
- 조선시대 중인층 천문역산가들의 활동의 무대
- 위치 : 초기 - 경복궁 궐내각사 구역에, 경희루 북쪽에 간의대  
후기 - 창덕궁 금호문 앞에 본관, 경희궁 남쪽에 별관



조선초기의 관상감, 漏局(禁漏廳)



관상감 관천대 (현대사옥 앞)

## 관상감의 제도와 운영

### ◎ 관상감의 조직

- ▶ 禮曹 소속, 3학(天文學, 地理學, 命課學)과 금루청
- ▶ 영의정이 領事로 당연직, 提調 2인(종2품) → 당상관
- ▶ 직제와 조직의 이원화 : 祿官職 체계와 위계적 관원 집단 조직으로 이원화

### ◎ 祿官職 실무자

- 正1인(정3품 당하관) 부터 종9품까지 실무자 30여명의 정원
- ▶ 녹관직은 일정기간씩 돌아가면서 맡는 ‘관직’일 뿐, 훨씬 많은 수의 관원들이 소속되어 업무를 담당

### ◎ 위계적 관원 집단

- ▶ 천문학 분야에만 130여명의 관원 집단

## 관상감의 녹관직 체계

직 품	동반체아직	서반체아직	동반실녹관직	서반실녹관직
정3품당하	正 1			
종4품	僉正 1			
종5품	判官 1	副司直 1		
종6품	主簿 1	副司果 2+α	천문학교수 1 지리학교수 1	천문학검교수 1 명과학검교수 1
종7품	直長 1	副司正 3		
종8품	奉事 1	副司猛 2		
정9품	副奉事 1		천문학훈도 1 지리학훈도 1 명과학훈도 1	
종9품	參奉 2	副司勇 3		천문학체아교수 1 명과학체아교수 1
합	9	11+α	5	4

## 관상감의 녹관직 체제

### ◎ 동반체아직

- ▶ 공식적으로 관상감을 대표하는 관직. 행정적 업무 담당
- ▶ 임기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맡음
- ▶ 1년에 2번 祿取才 시험성적으로 선발. 연임 불가.  
녹봉 없이 6개월 근무한 자에게 자격

### ◎ 서반체아직

- ▶ 녹봉만 있고 직무는 없다. 관직보다는 녹봉 받는 의미
- ▶ 임기는 3개월 또는 6개월. 취재로 선발 또는 상으로 주기도

### ◎ (동서반)실녹관직

- ▶ 관원의 교육, 시험 등 운영을 담당
- ▶ 30개월 또는 45개월의 안정적 임기. 판관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

## 관상감의 위계적 관원 집단 (조선후기)

天文學	地理學	命課學
三曆官	相地官	諷吉官
修述官	相禮官	修選官
推步官		
別選官	別選官	別選官
聰敏	聰敏	聰敏

## 천문학의 관원 집단

### ◎ 三曆官

- ▶ 가장 핵심적 고위층 관원 집단
  - 삼력관직 자체로는 녹봉과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 30(35)명 대부분이 녹봉과 직무를 받음
  - 정해진 임기없이, 결원이 생기면 수של관 중에서 시험을 거쳐 새로 선발
  - 17세기 무렵 시현력 시행 이후 생긴 듯
- ▶ 曆書 편찬 업무 : 시현력법을 계산하고 편찬, 간행하는 일
- ▶ 특전 부여
  - 교수직 자격 → 동반체아직 후보들
  - 북경의 부연관 파견
  - 求食禮를 주관
  - 역서 편찬의 三曆廳에 매년 차출(25명), 散料를 받을 기회

### ◎ 修述官

- ▶ 삼력관 아래의 관원 집단
- ▶ 1770년 설치 12명 정원 → 1787년 6명. 잡과 합격자에 자격
- ▶ 주로 시현력의 일월식 계산 업무 담당
- ▶ 특전
  - 삼력관 후보 자격
  - 훈도, 체아교수직 후보 자격

### ◎ 推步官

- ▶ 10명 정원
- ▶ 4명이 차출되어 칠정산내편법(보조 역법) 계산과 역서 편찬

### ◎ 別選官과 聰敏

- ▶ 전담업무 없이 약간의 자격과 기회만 부여
- ▶ 별선관 정원 30명. 녹관직이나 녹봉도 없음
- ▶ 총민 정원 11명-10명-7명 등. 종9품 부사용의 기회
- ▶ 참여 업무
  - 천변재이의 측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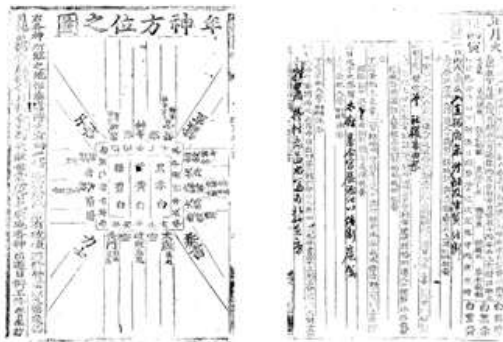
## ◎ 前銜

- ▶ 위 집단에 들지 못한 관원들
- ▶ 정원이 없이 수가 가장 많았던 듯. 1889년에 38명 이상
- ▶ 전담업무 없이 측후 활동, 입직 등 보조 업무에 참여
  - 녹봉 없이, 입직 근무자에게 소량의 급료 받음

## 관상감 천문학의 업무들

### ◎ 曆書 편찬과 간행

- ▶ 역서의 종류
  - 年曆과 長期曆(백중력, 천세력, 만세력)
  - 역법에 따라서 시헌력서와 대통력서
  - 수록 내용에 따라서 日課曆과 七政曆
    - 일과력 : 전체 역서의 99%. 널리 배포
    - 칠정력 : 천체력의 성격. 천체의 운행 도수를 기록  
왕, 세자, 관상감 보관용 등 소량만 인쇄
- ▶ 편찬 작업
  - 시헌력서는 삼력관(24명)이 중심, 12명씩 나누어 시헌일과력과 칠정력을 계산, 편찬
  - 대통력서는 추보관(4명)이 중심, 대통력 계산, 편찬
  - 시헌력의 경우 : 12명을 10월 초에 선발, 4명씩 나누어 한 계절씩 계산, 다음해 동지 무렵까지 1년 동안 작업



시헌일과력 (內用三書)

▶ 간행과 배포

- 4월 초부터 인쇄 시작, 동지 전에 완료
- 간행량 : 1791년 29만책. 1867년 35만책 - 인구 22~25명당 1권
- 고위층 관료, 서울과 지방의 각 관아에 배포
- 나머지(전체의 85% 이상)는 觀象監 私件 - 판매용
  - 관상감과 관원 몫. 관상감 재정과 관원의 녹봉을 대체하는 의미
  - 1795년 : 삼력관 당하관 1800책, 당상관 2400책. 1791년 추보관에게 1000책
  - 시중가도 발행 부수에 따라 변하는 등 시장 가격이 형성됨

◎ 천변의 측후 업무

- ▶ 역입직을 맡은 관원이 수행. 전함이 대략 44% 담당
- ▶ 3명이 한 조가 되어 3일동안 근무하고 교대
- ▶ 보고
  - 일상적 현상 : 해진 뒤, 아침 통금 해제 뒤에 보고
  - 중요한 이상 현상 : 발견 즉시 상변이 승정원 또는 시강원에 보고, 중하변은 삼정승과 관상감 제조에게 보고
  - 이상 현상이 장기화되면 星變測候廳 설치 측후. 고위직 관원이 차출

◎ 일월식 예보와 求食

- ▶ 삼력관, 추보관에서 1770년부터 수술관이 전담
- ▶ 5개월 이전에 예보. 왕과 세자궁에 보고
- ▶ 7일 이전에 재차 보고
- ▶ 당일에 구식례 시행
  - 궐내 대전, 세자궁, 서울과 지방의 각 관서에서
  - 관원들의 지위에 따라 차등있게 차출해서 구식례 주관
  - 임금이 親臨하기도

## 관료 체제 내의 천문역산가 집단

◎ 세 부류의 집단

1. 문과 출신의 관상감 제조 경력자들
2. 중인층 상류 : 천문학 수술관 이상의 관원들
  - 잡과 중의 음양과(또는 雲科) 합격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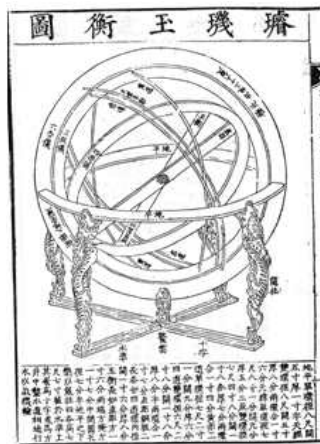
3. 중인층 하류 : 천문학 후보관 이하의 관원들  
 - 취재 등 자체 선발 시험을 거친 부류들

## 사대부 천문역산가들

◎ 왜 천문역산가가 되는가?

◎ 경전 공부를 위해서

- ▶ 서경 요전의 ‘기삼백주해’와 순전의 ‘선기옥형’조 공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
- ▶ 교육적인 용도로 혼천의를 직접 제작하기도
  - 도산서원의 혼의, 송시열의 혼천의 등
- ▶ 일부 재능 있는 사대부들만 관심, 대부분은 무관심했을 것



서경의 선기옥형도



송시열의 혼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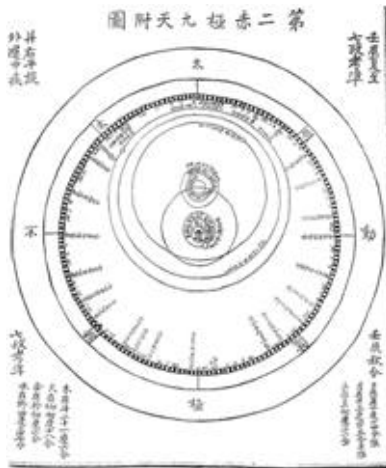
◎ 왕의 명령, 또는 관상감 제조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 ▶ 고려 말 이래 조선 초 천문관원들은 수준 높은 천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지적 능력이 부족
  - 서운관이 제 역할을 못함 - 실제로 세종대 천문 프로젝트는 서운관이 아닌 TF팀에서 수행

- 지적 능력 있는 사대부들은 잡학을 기피
- ▶ 세종대 잡학검수관 육성책
  - 천문습독관, 역산학관 등 제도 : 연소한 문신, 문과 급제자, 의관자제를 대상으로 별도로 훈련 시킴
  - 특혜
    - 6품 이상 동반 현직 진출을 보장, 청요직 등에 우선적으로 제수
    - 겸직으로 관상감 제조. 또는 천문 프로젝트 임무 부여
    - 세종대 천문역산가 정인지, 정초, 이순지, 김빈, 김담 등

## ◎ 천문역산학이 좋아서~~

- ▶ 조선후기적 상황의 변화
  - 관상감의 제도적-내용적 성장, 중인층 천문관원의 전문화 등으로 잡학검수관 제도 불필요
  - 17세기 이후 수준 높은 천문학 지식의 유입과 접촉
  - 경전 공부 이외의 잡학을 지식 그 자체로 추구하는 일부 사대부들의 새로운 지적 경향 - 명물도수학으로서의 천문역산학에 주목
- ▶ 사대부 천문역산가 집단의 성장-형성
  - 천문역산학 지식을 겸비한 사대부들의 대량 출현
    - 18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community가 형성될 정도. 당색을 초월
    - 家學으로 천문역산학 공부의 전통
      - : 소론계 서명응, 서호수, 서유본, 서유구 집안
      - : 노론계 홍석주, 홍길주 집안
- ▶ 사대부 천문역산가들의 활약
  - 관료로서 관상감 제조 역임하면서 천문 프로젝트 수행
    - 서호수 - 정조대 천문 프로젝트 주도
    - 남병철 - 19세기 중엽 수많은 저술(천문관원의 교과서 집필)
  - 재야에서 개인적으로 천문연구와 저술 활동
    - 김석문, 홍대용, 이가환, 정철조, 유금, 최한기 등



김석문의 우주도



홍대용의 혼천의



유금의 아스트로라베(동아시아 유일)



홍길주 弧角演例

## 중인층 천문역산가들

### ◎ 조선 초의 천문관원들

- ▶ 고려 말의 잡학인 전통.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출신
- ▶ 지적으로 천문 프로젝트 수행할 능력 부족
- ▶ 세종대 장영실
  - 노비 출신의 예외적 인물
  - 尙衣院 소속으로 천문관원은 아님
  - 자격루와 옥루 제작에 큰 공을 세움



장영실의 자격루



장영실의 옥루

### ◎ 조선후기에 전문가 집단을 형성

- ▶ 雜科(陰陽科 또는 雲科)를 거친 합격자들이 상층부
  - 태종대(1401무렵)부터 음양과 시행, 1894년까지
    - 전시 없이 초시와 복시만 치름. 식년시와 증광시
    - 천문학 5명, 지리-명과학 각 2명 합격
    - 1등 중8품, 2등 정9품, 3등 중9품

- 잡과방목의 통계(1713~1885) : 총 합격자수 831명

▶ 폐쇄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

- 천문학 명문 가문이 형성. 세전성이 커짐
- 천문관원직의 독점화 경향

◎ 조선후기 천문학 발전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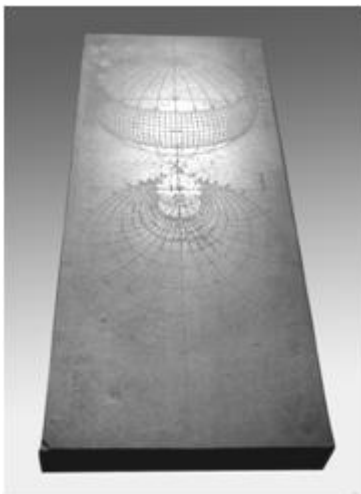
▶ 17세기, 시헌력 확립에 큰 기여

- 북경에 파견되어 천문역산서 구입해 오는 임무 수행
- 구득해온 천문서를 독학으로 소화, 독자적 계산법 터득

▶ 18~19세기, 사대부 천문역산가와의 긴밀한 교류, 협동작업

- 정조대 문광도
  - 서명응을 도와 혼천도, 개천도를 절충한 천문도 제작
  - 18세기 최고의 사대부 천문역산가 서호수를 가르침
- 정조대 김영
  - 관상감 제조 서호수와 함께 정조대 천문 프로젝트 주도
  - 서유본, 홍길주 등 사대부 천문역산가들과 깊은 토론
- 19세기 중반 이상혁
  - 남병길과 협동 작업으로 수학책 저술

서호수와 김영의 관측의기 (정조대)



간평-혼개일구



적도의

#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세계

최 선 일

문화재청



#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세계

## ◆ 목 차 ◆

1. 조선전기의 불교조각
2. 조선후기의 불교조각

조선시대 불교조각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전기는 불교 종단을 통폐합하여 사찰과 승려의 수를 제한하며 사찰 소유의 토지와 노비를 국가로 환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새로운 불상의 제작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전국의 사찰이 파괴되어 『송광사지(松廣寺誌)』에 “영남과 호남의 사정이 혹독(酷毒)하여 연해의 각 읍이 차례로 함락을 당하여, 백골이 산을 싸고 유혈이 바다를 이루었다 … 여염(閭閻)과 산사(山寺)가 거의 선회만 남긴 폐허가 되었다 … ”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다. 전쟁 중에 의승군(義僧軍)은 불살생의 계율을 깨면서까지 국가와 왕실을 위하여 전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호국불교사상은 전쟁이 끝나고 불교와 승려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소실된 사찰의 중창과 중수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후원세력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사찰 중창과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전각의 건립과 많은 불교미술품이 제작되었다. 특히, 믿음의 대상인 불상은 사찰 전각마다 적게는 1구에서 많게는 20구 이상까지 봉안되었다. 그러나 불상은 제작된 후에 쉽게 없어지지 않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상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조각승들이 불상의 제작보다 중수와 개금을 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상 제작의 상황 이외에도 전기와 후기는 불상을 제작한 후원세력이 차이가 난다. 조선전기 불상은 왕실을 비롯한 지배계급 위주로 발원되어 관청수공업자 등이 제작하면서 조형성이 뛰어난 불상을 만든 반면에 조선후기 불상은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후원으로 불상이 제작되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들은 일정한 사찰에 모여 살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를 중심으로 하나의 조각승 계보를 형성하였다.

현재 한국불교미술사에서 조선시대 불교미술은 쇠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불교조각의 경우는 조선후기 제작된 불상이 이상적인 미가 없고, 정형화되어 변화과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 불상은 불교를 억압하였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외래 불상의 영향 없이 승려들이 주도적으로 불상을 제작하여 가장 한국적인 불상을 만들었다는 새로운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1. 조선전기의 불교조각

조선전기 조정에서는 불교를 지배하기 위하여 억압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불교를 용인하여 수륙재(水陸齋)를 거행하고 원찰(願刹)을 조성하였다. 특히, 세조와 명종 때에 왕실의 후원 아래 불교미술은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이 많은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다. 이때 만들어진 불상은 고려후기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명대(明代) 불상 양식을 반영하였다.

고려후기 불상 양식을 반영한 불상은 1478년 강진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충남 해미 개심사 협시보살상, 나주 불회사 삼존불상 등이다. 여래상은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은 변형통견식으로 대의를 걸치고, 가슴에는 승각기와 치마를 묶은 띠 매듭이 보이는 점 등에서 이전 시기의 불상 양식을 계승하였지만, 왼쪽 가슴에 대의자락이 말려 있거나 옷 주름이 간략화 된 점, 편편한 가슴의 처리 등은 조선전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요소이다. 특히, 무위사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이 관음과 지장으로 경전에서 대세지보살을 대신하여 지장보살이 배치되는 도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이 도상은 14세기 중반 고려 불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5세기 유행하였다. 그 가운데 강진 무위사 불상이 제작될 당시에 사찰이 수륙사로 지정된 점을 보면, 아미타불이 지장을 협시로 거느린 도상이 수륙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후기 불상 양식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된 불상은 1458년 영주 흑석사 목조여래좌상, 1482년 천주사 목조여래좌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501년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등이다. 여래상은 변형편단우견이나 변형통견식의 착의법, 육계가 뽕족해지면서 그 위에 정상계주가 있는 점 등은 고려후기 불상양식 가운데 라마불상을 계승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불상의 허리를 늘씬하게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길어진 상반신과 좁은 어깨 등은 새로운 요소들이다. 그리고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근엄하고 굳은 얼굴 표정이나 한 다리를 내린 반가좌의 자세 등에서 고려시대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조선전기 왕실에서 발원한 대표적인 불상으로 강원 평창 상원사에 봉안된 1466년 문수동자상이 있다.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 부부가 아들을 낳기 바라면서 제작된 이 동자상은 머리를 양쪽으로 묶고, 신체의 표현이 당당하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증사탑의 초층 탑신석에서 발견된 금동불감과 그 안에서 발견된 3구의 불상 중 석가여래에서 나온 발원문을 통해 수증사가 창건된 1459년과 1493년 사이에 명빈 김씨의 발원으로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 2. 조선후기의 불교조각

조선후기 제작된 불교조각은 전국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있다.

현재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사적기를 통하여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불상은 총 200여건, 700여점에 이르고 있다. 불상의 크기는 20~500cm로 다양하고, 재료도 나무, 흙, 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도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복장의식(腹藏儀式)이 진행되어 불상 내부에 후령통, 경전, 발원문 등 다양한 복장물을 넣었고, 이 가운데 발원문에는 제작연도, 봉안처, 존명, 목적, 연화질, 시주질 순으로 내용이 적혀있어 조선후기 불교계와 불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후기 불교조각사는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양식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조선후기 불상양식의 성립기(1600~1650)로 전쟁이 끝나고 사찰의 중창과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중소형 불상을, 1620년대 중반 사찰 경제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300~500cm에 달하는 대형소조불을 제작하였다. 이 시기 활동한 조각승은 현진, 수연, 청허, 청헌 등이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이들이 제작한 각각의 불상은 얼굴표현과 신체비례 및 오른쪽 어깨와 하반신에 걸친 대의 자락이 다르게 표현되어 조각승 계보마다 하나의 불상양식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기는 조선후기 불상양식의 전성기(1651~1740)로 명산대찰의 부속건물 등에 100~150cm 정도의 중형목조불을 6~9명 정도의 조각승들이 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조각승은 17세기 중반의 무염, 운혜, 승일, 회장, 17세기 후반의 색난, 18세기 전반의 진열과 하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제작한 불상의 특징은 동일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만든 불상에서 얼굴표현과 신체비례 및 오른쪽 어깨와 하반신에 걸친 대의 표현 등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조각승 계보마다 하나의 불상 양식을 성립하여 불상의 정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기는 조선후기 불상양식의 확산기(1741~1800)로, 대부분 사찰 전각에 불상이 봉안되어 불상 제작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조각승이 불상 제작보다 중수와 개금을 주로 하고, 일부 불화승이 조각승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활동한 조각승은 상정, 계초, 봉현, 계심 등이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은 18세기 전반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여 도식화되고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첨가되는 특징이 있다. 4기는 조선후기 불상양식의 쇠퇴기(1801~1910)로 불상 제작의 수요가 거의 없어져 조각승의 존립 자체가 붕괴되었고, 그 역할을 불화승이 대신하면서 불상을 제작하는 시기이다.

조선후기에 활동한 조각승의 계보를 살펴보면, 조각승들은 사제지간과 선후배관계를 바탕으로 조각승 계보를 형성하였다.

현진파 : 현진(玄眞, -1612-1637-)→청헌(淸憲, -1626-1643-)→승일(勝日, -1629-1689-)  
→희장(熙藏, -1639-1661-)→보해(寶海, -1646-1680-)

수연파 : 태전(太顯, -1600-1615-)→수연(守衍, -1615-1639-)→성옥(性玉), 영철(靈哲,  
-1623-1649-)→운혜(雲惠, -1639-1680-), 경림(敬琳)→인성(印性, -1667  
-1748-), 삼인(三忍)

청허파 : 원오(元悟, -1599-1610-)→각민(覺敏)→청허(淸虛, 1605-1640-)→법현(法玄),  
현운(賢允, -1639-1643-)

무염파 : 행사(幸思)→무염(無染, -1633-1656-)→해심(海心), 도우(道祐, -1633-1657-)  
성수(性修), 경성(敬性) → 설탄(雪坦)

색난파 : 색난(色難, -1680-1730-)→충옥(忠玉, -1668-1703-), 초번(楚卞, -1680  
-1706-), 일기(一機)→하천(夏天, -1703-1730-), 석준(碩俊), 종혜(宗惠)

진열파 : 자수(自修)→성심(性沈, -1673-1695-)→진열(進悅, -1695-1722-)→태원(太元,  
-1698-1748-), 상정(尙淨, -1747-1771-)→칭숙(稱淑, -1754-1780-), 계초  
(戒初, -1754-1790-), 봉현(封玪)

조선후기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은 1603년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삼존불, 1626년 보은 법주사 대웅전 삼신불, 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삼존불(아미타, 관음, 세지보살), 1639년 예산 수덕사 목조삼세불, 1650년 속초 신흥사 목조삼존불, 1694년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불과 목조아미타불, 1703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존사보살(三尊四菩薩), 1790년 화성 용주사 목조삼세불 등이다. 이외에도 개인이 원불(願佛)로 가지고 다니던 목조불감은 1637년 목조불감, 1644년 목조불감, 1689년 고려미술관 소장 목조불감 등이 있고, 여러 개의 판목을 잇대어 붙이고 그 위에 불상과 나한상 등을 조각한 목각탱은 1684년 용문사 대웅전 목각탱, 1694년 상주 남장사 목각탱,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 등이 대표적이다.

# 조선의 무당과 점복

홍 태 한

중앙대학교



## 조선의 무당과 점복

### ◆ 목 차 ◆

1. 한국 무당의 유형
2. 한국 무속의 신령
3. 한국 무속의 문화권 구분
4. 한국 무속의 문화적 의미
5. 조선시대의 무당
6. <무당내력>, <무당성주기도도>
7. 조선시대 무속의 현대적 계승

### 무당이란?

1. 무당 - 무속 신앙의 주체
2. 굿의 주재자, 신과 인간의 매개자
3. 한국인의 보편적 심성과 연결됨
4. 무당의 역할 - 상담사, 정신 치료사
5. 무당의 숫자 - 20만 명 내외
6. 선굿 무당과 점치는 무당의 구분



신윤복의 무녀신무

## 한국 무당의 유형

구분	강신무	세습무
입무동기	강신(신병-내림굿)	세습
신단	有	無(일부 존재)
신복	신 - 변화	불변
제의 진행	請神-娛神- 공수(神託)-送神	기원
巫舞	踏躍舞, 동적	정적
무악	타악기 중심	선율악기 포함
음악 장단	단조	다양
제의 핵심	神力, 영험성	예술성, 오락성

## 강신무의 신병

1. 의학적 치료 불가능
2. 원인 해명 불가
3. 증상 : 환청, 환각, 육체적 고통
4. 기존 무당 만나 강신 현상임을 확인
5. 내림굿(신굿)으로 입무
6. 입무와 동시에 모든 증상 소멸
7. 내림굿을 통해 신부모 관계 형성
8. 신병과 혈통 간의 관계는 매우 강함 - 세습무로 분화 변천

## 세습무의 세습

1. 부계 중심
2.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승
3. 남자는 악사 역할
4. 일정한 영역 존재 - 단골판
5. 단골판은 매매 가능
6. 마을에 거주하며 상담자, 사제무 역할
7. 다양한 예술에 능통

## 한국 무속 신령 체계

1. 天上神 系統 - 天神, 日神, 月神, 星神
2. 地神 系統 - 터주신, 골매기신, 부군
3. 山神 系統 - 山神, 서낭신, 도당
4. 水神 系統 - 龍王 大川神, 龍宮夫人
5. 火神 系統 - 벼락대신, 조왕신
6. 邪鬼神 系統 - 도깨비, 호구, 수비, 영산
7. 疫神 系統 - 별상, 손님
8. 冥府神 系統 - 十王, 사재삼성, 중디
9. 産神 系統 - 삼신, 시준할머니
10. 王神 系統 - 태조, 공민왕, 단종, 칠공주
11. 將軍神 系統 - 임경엽, 최영, 남이, 관우
12. 大監神 系統 - 대감
13. 佛教神 系統 - 佛師, 보살, 무학, 세존



## 한국 무속 신령의 특징

1. 개방적인 신령 체계 - 신령의 자격 없음
2. 배타적이지 않은 체계
  - 외국 신령에 대한 호의적 수용. (예)관우, 맥아더 등
3. 인간의 또 다른 모습
  - 희로애락 감정 표현, 변화가 심한 존재로 묘사
4. 억울한 존재가 解怨 후 신격화 - 현실의 고난 극복 가능
5. 위계 질서 불분명 - 하위신 상위신 불분명
6. 雜鬼 雜神에 대한 인정 - 대접해야 할 존재
7. 굿거리 짜임과 신령 체계 관련
  - 淨化, 신령 초청, 拜禮 - 굿 초반부
  - 天神, 地神, 人物神(祖上) 대접 - 굿 중반부
  - 雜鬼 雜神 대접 - 굿 후반부 洪泰漢



개별 신령 - 十大王



개별 신령 - 감홍마지(大臣)



개별 신령 - 관우

## 한국 무속의 신령-조상신

1. 조상신의 의미
2. 조상신의 특징
3. 조상신 존재의 가치
4. 조선시대 조상숭배와 무속
  - 설공찬전

## 한국 무속의 문화권 구분

1. 북한지역의 강신무 문화권
2. 서울경기지역의 독특한 강신무 문화권
3. 한강 이남의 세습무 문화권
4. 동해안 지역의 독특한 세습무 문화권
5. 제주 지역의 복합적인 문화권
6. 문화권의 의미
  - 음악, 민요, 풍물 등

## 한국 무속의 문화적 의미

1. 기층문화로 존재 - 유교 불교 기독교 가톨릭
2. 다양한 문화의 매개체
3. 한국의 복합적 문화의 구심점
4. 전통예술의 근간
5. 한국인 심상과 심성의 반영

## 조선시대의 무당

1. 천인 대우 - 공식적 위상
2. 문제 해결사 - 비공식적 위상
  - 영조 조 독갑방 사건

3. 예술의 담당자 - 무부, 예인, 광대패
4. 현실을 넘어서는 힘을 가진 존재 - 각종 권력 집단과 연결

## 무당내력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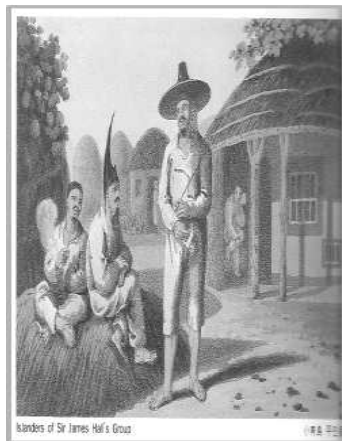
## 무당성주기도도 보기







## 서구인들이 본 곳







## 조선 무당의 현대적 계승

1. 무당굿의 변화  
나라굿 - 고을굿 - 마을굿 - 개인굿
2. 무당굿의 의미 하락
3. 무당굿의 예술적 기능 변화
4. 대동성의 상실과 개인 기복성의 강화
5. 삶의 방향제시자에서 개인 문제 해결자로 변화

## 21세기 현재 무당

1. 한 해 행해지는 곳 - 10여 만 건 이상
2. 무당 숫자 - 20-30만 명 추산
3. 불안한 현대사회의 반영
4. 직업인으로 존재
5. 21세기 이후에도 존재 의미 있음
6. 초현실적인 것을 갈망하게 하는 현대사회

2012년 박물관 시민강좌

**조선 프로페셔널** 전문가의 세계

---

발행일 : 2012. 12

발행인 :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발행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청량로 160번길 26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편집 • 인쇄 : 가우스미디어 Tel. (032)543-0933

